

마가복음

S. D.

II

102





63. 13.

COR. 1-597



대표선기국오백사년윤미

# 마가보름

휴강성일천팔백구십오년

DONS  
N<sup>o</sup> 7980



# 마가복음

## 데일장

런 주의 아 들 예 수 과 독 복 음 의 시 작 이 니 셴 지 자  
이 시 아 의 과 록 훈 것 과 궤 하 니 닐 으 디 불 지 어 다 내 가 내 스 자 를  
네 암 희 보 내 여 네 길 을 예 비 흘 치 들 에 하 나 의 소 리 잇 서 쉼 여 클  
으 디 주 의 길 을 예 비 하 야 그 곱 은 길 을 곳 게 하 라 하 니 라 요 한 이  
와 셔 들 에 서 세 례 를 주 고 죄 사 하 는 뉘 웃 처 곳 치 는 례 를 전 하 니  
온 유 태 싸 와 온 야 로 설 링 사 롬 이 나 아 가 각 각 제 죄 를 즈 복 하 고  
요 단 하 슈 에 서 세 례 를 요 한 의 게 밧 으 니 요 한 은 약 디 털 을 남 고  
허 리 에 가 족 썩 을 썩 고 되 썩 이 와 석 청 을 먹 니 라 전 도 하 여 클 으  
디 내 뒤 에 오 는 이 는 날 보 다 능 력 이 만 흐 니 곱 혀 그 의 신 들 메 를  
푸 는 것 도 또 훈 감 당 치 못 흘 지 라 나 는 너 를 물 노 세 례 를 주 되 오  
적 그 는 성 신 으 로 네 게 세 례 를 줄 니 라 ○ 그 새 에 예 수 가 리 리 나 살  
마가복음 ㉓ 데일장

륙으로 오샤 요 단 하에서 세례를 요한의 계 밧으시고 곳 물에서  
올나 오실시 하늘이 열리며 또 성신이 비듬이갓치 그우에 강림  
홍을 보고 또 소리가 하늘노나오되 너는 내의 사랑하노아들이  
니 내의 깃거워하노이라 하시니라 ○ 성신이 곳 예수를 모라들  
에 나아가 들에서 스십일을 살 단의 계 시험을 밧으실시 들 증성  
으로 혼자 가지거쳐 하사 매련수가 슈종드니라 이에 요한이 갓치  
후에 예수 가리리에 이르러 려 주복음을 전하야 콜으샤 디괴약  
이 임의 니르고 려국이 갓가왔스니 뒤웃쳐 곳치고 복음을 밧을  
저어 다 예수 가리리 바다가 에 행하시다가 셔 문이그 동성안득  
렬노더 브레그 물을 바다 에 더 짐을 보시니 그들이 어복이 너라  
예수 콜으샤 디나를 좃치라 장차 사름을 낚는 어복이 되게 하리라  
하시니 그들이 곳그 물을 브리고 좃더라 조곰더 가지다가 셔 비태외

아들아 각이 그 동성요한으로 더 브러 비에서 그 물들김은 거술보시  
 고 예수 | 곳 부르시니 그들이 아바니셔 비레와 삭군들을 비에 두고  
 예수를 좃더라 ○ 가 백농에 드러가시니 곳 사뱃날이라 예수 | 회  
 당에 드러가샤 마르치시니 못사롬이 마르치심을 괴괴히 녀임  
 은 그 사롬 마르치는 거시 권세를 잡은 이 곳 고셔 사관과 또 지아님  
 일너라 회당에서 곳 사귀들닌 사롬 하나 이 잇서 불너 글으 디슬  
 프다나 살룩사롬에 수여 우리가 너로 더 브러 무슴상관이 되건  
 대 우리를 멸하러 왔는냐 나는 네가 된 줄을 아노니 이에 텃쥬  
 의 거룩한 자 | 나라 예수 | 썩지져 콜으 샤 디 말하 지 말고 나오  
 라 하시니 사귀가 그 사롬을 오글썬리고 큰 소리로 울며 나오거  
 늘 못사롬이 이상이 내여셔로 무러 콜으 디 이는 엇잠이뇨 새도  
 마르침이로 다 권세로 사귀를 명하매 사귀가 순종한다 하니



수의 소문이 곳곳이 리리디 방처에 드러가지 아닌디 업더라 ○ 소  
 회당에 나가 사야 각과 요한으로 너 크러셔 문과 안득 델의 집  
 에 드러가시니 서문의 장모 열병으로 누엇는지라 후이곳에  
 수셔고 흐디 예수 오셔셔 그 손을 잡아 니리키시니 열병이 곳  
 물너가고 녀인이 그들의게 슈종드니라 ○ 저녁때히 질적에 병  
 든이와 귀신들난이를 드리고 예수께 나아오는이 잇고 온성이  
 문에 모히거늘 예수 모든 병든이를 곳치시며 모든 귀신을 내  
 여 쫓치시되 귀신이 말하기를 허락지 아니시니 귀신은 예수를  
 알밀너라 ○ 잇흔날일은 식벽에 예수 내려나들어가사 거기  
 서기도 하시더니 서문과 환가지는 사람이 발조치를 싣라가  
 임의 맛나매 큰이 되모든 사람이 쥬를 찻는니다 예수 날이 사  
 디우리가 갓가온 마을에 가서 도를 전하리니 내가 오기는 이를

위함이로라<sup>三</sup>이에 가리리 스방의 당에 계셔 도를 전하시며 사귀  
 를내여 쫓치시더라 ○ 문동병들난 자 예수씩나아와 썩러 업디여  
 근구 하여 글으 디 쥬역셔하고져하시면 능히나를 조찰케 하시  
 리이다<sup>四</sup>하거늘 예수 | 민망이 너이사 손을 펴셔 문지시며 글으  
 샤디내하고져하노니 네가 조찰하라<sup>四</sup>하신디 곳 문동병이나  
 가고그사름이 조찰하리라 예수 | 엄히 경계하샤 보내시며 글  
 으샤디삼가아모사름의게라도아모말하지말고다만바로가  
 셔제스의게네몸을보이고뭇사름의게 증거함을위하야네조  
 찰함으로마셔의명훈바그레물을드리라<sup>四</sup>그러나그사름이나  
 가전과하가를만히시작하며즈랑하니그러므로 예수 | 완연  
 이성에드러가지못하시고밧것들애거쳐하시나스방에서에  
 수씩나아오더라

데이장

수일을 지나 예수 | 다시가 백농에 드러가 짐에게

신소문이 들닌지라 사름이 만이 모혀들매 아모용 신희름이 업  
고 문압히라도 용 신희수가 더욱 업논디 예수 | 그들의 계도를  
전하시더니 반신불슈병든 사름 하나를 너히 메고와서 사름이  
만하갓가 이항지 못함으로 짐을 싣고 구명을 낸 후에 병든 자  
의 누운 요를 드러 리니 예수 | 그 사름들의 밋음을 보시고 반  
신불슈된 자 드러 널너 콜으샤 디쇼즈야네 죄를 사하노라 하시  
니셔사 관뎡사름이 거괴안져서 중심에 의론하여 글으디이사  
름이 엇지 이긋치말하느뇨 제방항도 다 혼분 텃쥬외에 뒤가  
능히 죄를 사하겟느냐 예수 | 꽃그들의 중심으로 이러케 의론  
하느 줄을 알으시고 널너 콜으샤 디 엇지 이거슬너의 중심에 의  
론하느냐 반신불슈된 자 드러 너의 죄를 사하여 준디 말하겟과



후나러나네의요를것어가지고거르라말하논거시엇던거시  
 십겟는나<sup>+</sup>다만너로인즈<sup>+</sup> | 싸에서죄를샤하논권세가잇는줄  
 을알게하리라하시고드디여반신불슈된쟈드려말삼하샤디<sup>+</sup>  
 나러나네요를가지고집으로도라가라하시니그사롬이니러  
 나곳요를가지고못사롬압흐로나가거논데들이과이녀여영  
 왕을<sup>+</sup> 런쥬역돌녀보내며골으디우리가이런일을일즉보지  
 못하엿다하더라<sup>十三</sup> 예수 | 다시바다가에나가시니모든사람이  
 나오거늘예수 | 무르치시고<sup>十四</sup> 지나가실시아륙비의아들리마  
 가세판에안짐을보시고드려닐으샤디나를조치라하시니  
 리미가니러나쫓더라<sup>十五</sup> 예수 | 리미의집에안자잡수실때에만  
 혼세리와죄인들이예수와그예즈들노함씩안젓시니대개사  
 롬이만히잇서셔예수를쫓는지라<sup>十六</sup> 법리석의셔샤관들이예수

마가복음 ㉓ 데이장

스

1 죄인파셰리들노더브러잡수시는거슬보고그메즈드려  
 말하여골으디더사룸이엇지하야세리와죄인들노더브러역  
 고마시는노항거늘예수<sup>17</sup> 드르시고더회드려골으샤디건장  
 현이의게논의원이쓸타업고병든이라야쓰는내가올흔사  
 룬을볼으려온거시아니오죄인들을볼으려왔노라<sup>18</sup> 또요한  
 의데즈들파법리시사룸들이금식을항거늘그들이와셔예수  
 1 쟀말되엇지요한의데즈들파법리시의데즈들은금식을항  
 되그덕외데즈들은금식을아니항는노항니예수<sup>19</sup> 1 콜으샤디  
 혼인치하간사룸이신랑과혼쎌잇슬때에엇지금식항리오신  
 랑잇슬동안에논그들이금식항지못항는니날이니르러신랑  
 을리별혼후그때에금식홀지니라<sup>20</sup> 새가음으로헌옷술김논이  
 가업숨은새로기운거시헌옷술당피어햇드리게홀이도로혀

쿨가홈이요<sup>三</sup>또 새술을헌가족부디에<sup>三</sup>넋는이<sup>三</sup>가업삼은새술이  
 부디를터지우고술과부디가상홀가홈이나새술은새부디에  
 넋는나라<sup>三</sup>○사<sup>三</sup>밭날에예수<sup>三</sup> | 곡식<sup>三</sup>밭흐로지나실서그대즈들  
 이<sup>三</sup>은날째에곡식이삭을<sup>三</sup>잘으니<sup>三</sup>법리<sup>三</sup>시<sup>三</sup>사람들이예수<sup>三</sup>씨<sup>三</sup>골으  
 디<sup>三</sup>볼지어다가<sup>三</sup>들이<sup>三</sup>엇지<sup>三</sup>사<sup>三</sup>밭날에<sup>三</sup>당<sup>三</sup>치<sup>三</sup>못<sup>三</sup>홀<sup>三</sup>일<sup>三</sup>을<sup>三</sup>힘<sup>三</sup>항<sup>三</sup>는<sup>三</sup>노<sup>三</sup>에<sup>三</sup>  
 수 | <sup>三</sup>골으<sup>三</sup>샤<sup>三</sup>디<sup>三</sup>대<sup>三</sup>위<sup>三</sup>와<sup>三</sup>홈<sup>三</sup>의<sup>三</sup>가<sup>三</sup>던<sup>三</sup>사<sup>三</sup>름<sup>三</sup>들이<sup>三</sup>쓸<sup>三</sup>거<sup>三</sup>시<sup>三</sup>업<sup>三</sup>서<sup>三</sup>시<sup>三</sup>장<sup>三</sup>  
 홀<sup>三</sup>때<sup>三</sup>에<sup>三</sup>엇<sup>三</sup>더<sup>三</sup>케<sup>三</sup>그<sup>三</sup>가<sup>三</sup>아<sup>三</sup>비<sup>三</sup>아<sup>三</sup>랍<sup>三</sup>재<sup>三</sup>스<sup>三</sup>장<sup>三</sup>되<sup>三</sup>엿<sup>三</sup>슬<sup>三</sup>때<sup>三</sup>에<sup>三</sup> <sup>三</sup>던<sup>三</sup>쥬<sup>三</sup>의<sup>三</sup>  
 던<sup>三</sup>에<sup>三</sup>드<sup>三</sup>러<sup>三</sup>가<sup>三</sup>츠<sup>三</sup>려<sup>三</sup>논<sup>三</sup>떡<sup>三</sup>을<sup>三</sup>먹<sup>三</sup>고<sup>三</sup>또<sup>三</sup>좃<sup>三</sup>는<sup>三</sup>자<sup>三</sup>를<sup>三</sup>주<sup>三</sup>었<sup>三</sup>는<sup>三</sup>노<sup>三</sup>이<sup>三</sup>떡<sup>三</sup>은<sup>三</sup>  
 제<sup>三</sup>스<sup>三</sup>장<sup>三</sup>외<sup>三</sup>엿<sup>三</sup>사<sup>三</sup>름<sup>三</sup>은<sup>三</sup>가<sup>三</sup>히<sup>三</sup>먹<sup>三</sup>지<sup>三</sup>못<sup>三</sup>홀<sup>三</sup>다<sup>三</sup>홈<sup>三</sup>을<sup>三</sup>네<sup>三</sup>가<sup>三</sup>나<sup>三</sup>지<sup>三</sup>못<sup>三</sup>홀<sup>三</sup>엿<sup>三</sup>  
 는<sup>三</sup>나<sup>三</sup>또<sup>三</sup>골으<sup>三</sup>샤<sup>三</sup>디<sup>三</sup>사<sup>三</sup>밭<sup>三</sup>날<sup>三</sup>은<sup>三</sup>사<sup>三</sup>름<sup>三</sup>을<sup>三</sup>위<sup>三</sup>항<sup>三</sup>야<sup>三</sup>마<sup>三</sup>련<sup>三</sup>헌<sup>三</sup>거<sup>三</sup>시<sup>三</sup>요<sup>三</sup>사<sup>三</sup>름<sup>三</sup>  
 이<sup>三</sup>사<sup>三</sup>밭<sup>三</sup>날<sup>三</sup>을<sup>三</sup>위<sup>三</sup>홈<sup>三</sup>이<sup>三</sup>아<sup>三</sup>니<sup>三</sup>너<sup>三</sup>이<sup>三</sup>러<sup>三</sup>므<sup>三</sup>로<sup>三</sup>인<sup>三</sup>즈 | 사<sup>三</sup>밭<sup>三</sup>날<sup>三</sup>의<sup>三</sup>쥬 | 니  
 라

마가복음  
 ≡≡≡ 데삼장

오

데삼장

또 예수 | 다시 회당에 드러가시니 거기 환편손마

른이가잇는지라 못사람들이사 밤날에 예수 | 그 사람을 곳치나엿

보아척잡으랴 흠일너라 예수 | 손마로 사람을 드러닐너 글으샤 티니

러나셔라 하시고 못사람의게말씀하여글으샤 티사 밤날에 선을

힘흠파악을 힘흠파성명을 구흠파해흠이어는 거시을흐냐 못

사람이 짐 짐하거늘 예수 | 노함심으로 못사람을 들너 보시니 그

마음들이 완흠을 근심함심이라 병든자 드러글으샤 티네 손을 펴

라 하시니 이에 퍼매 제손이나 으니라 법리사 사람이 나와 곳회

물의 당으로 흠씨에 수틀엇너 케죽이기를씨하더라 ○ 예수 |

테즈들과 환가지바다에가시니 허다함사람이 가리리로 브터

조치며 쓰 유태로서와 야로살림으로서와 이토미로서와 요단

밭으로써와 또 추라와 셔돈과 그근쳐허다함차름이 예수외 큰

2  
 형<sup>九</sup>을 심을 듯고 나 아 오 거 늘 예 수 1 데 즈 들 의 게 말 솜 호 사 저 은  
 비 틀 예 비 흐 여 기 등 리 라 호 심 은 사 롬 이 만 하 즈 기 를 예 워 씬 일  
 너 라 대 개 여 러 사 롬 을 임 의 듯 게 호 신 고 로 병 든 사 롬 들 이 예 수  
 를 만 지 고 저 호 야 꺾 근 이 호 고 사 귀 들 이 어 느 때 던 지 보 고 압 회  
 업 디 여 글 으 디 너 는      텃 쥬 의 아 들 이 라 호 거 늘 예 수 1 엄 히 경  
 계 호 사 디 알 게 호 지 말 나 호 시 더 라 ○ 또 산 에 올 으 사 즈 기 므  
 옴 디 로 사 롬 을 부 르 시 니 사 롬 들 이 나 아 오 거 늘 열 두 사 롬 을  
 세 우 시 고 즈 기 와 흠 찍 앓 게 도 호 시 고 보 내 여 전 도 도 호 게 호 시  
 며 귀 신 을 내 여 쫓 는 권 세 도 잇 게 호 실 식 피 득 이 라 일 흠 주 신 서  
 문 과 또 서 비 태 의 아 들 아 각 과 아 각 의 동 성 요 한 이 잇 스 니 이 득  
 사 롬 은 일 흠 을 주 어 글 으 사 디 반 니 디 라 호 시 나 번 역 호 면 우 례 의  
 아 들 이 오 또 안 득 렬 과 비 려 과 파 다 라 미 와 마 태 와 다 마 와 아 름



비 의 아 들 아 각 과 달 래 와 예 라 호 는 서 문 이 잇 고 또 가 략 유 대  
니 그 가 예 수 를 포 랐 는 니 라 ○ 임 의 집 에 드 러 오 시 매 뭇 사 롱 이  
다 시 모 혀 썩 먹 을 겨 를 도 업 는 지 락 예 수 의 천 속 들 이 듯 고 곳 나  
아 와 만 류 향 야 곶 으 디 그 가 밋 쳐 다 호 고 셔 샵 관 은 야 로 살 링 으  
로 나 려 와 셔 곶 으 디 그 가 별 셔 복 을 집 히 고 귀 신 의 왕 으 로 귀 신 를  
내 여 쫓 는 다 호 니 예 수 一 불 너 오 라 호 샵 비 유 를 베 프 러 곶 으 샵  
디 살 단 이 엇 지 능 히 살 단 을 내 여 쫓 겠 는 나 또 만 일 나 라 이 서 로  
난 호 이 면 그 나 라 이 능 히 셔 지 못 호 고 만 일 집 이 서 로 난 호 이 면  
그 집 이 능 히 셔 지 못 호 고 만 일 살 단 이 너 러 나 제 몸 을 처 난 호 이  
면 능 히 셔 지 못 호 고 반 드 시 망 호 기 에 너 를 지 너 사 롱 이 힘 셴 사  
롬 의 집 에 드 러 가 계 간 을 특 탈 처 못 호 리 니 몬 저 힘 셴 사 롱 을 결  
박 후 에 야 그 집 을 특 탈 호 는 니 라 내 실 노 너 희 게 날 으 노 니 사

롬에 모든 죄악과 회방하는 말노 무엇을 회방하던지 그 거슨 다  
 사하여 주려니와 오직 누구던지 성신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여  
 줌을 얻지 못하고 반드시 영영한 죄를 범하는 나라 함심은 그들  
 이 예수 드려 말하기를 사귀 들 벗다 할 연고니라 ○ 때에 예수  
 외어 마니와 동성들이 와서 밧쳐서 사롬을 보내여 예수를 부  
 르니 못사롬이 돌나 안젧다가 예수 띠엿 주워 곧 오디 그 디외 모  
 친과 동성들이 밧기 와서 좃는다 함 거늘 예수 디 답하여 곧 오  
 샤 디 뒤 가나 의 모 친 이며 나 의 동성이 나 함 시 고 돌나 안진  
 사롬 들 을 돌너 보 시 며 곧 오 샤 디 나 의 모 친 과 나 의 동성 들  
 을 보 라 누구던지 텨 주 의 뜻 을 행 하는 그 사 롬 이 나 의 동 성 이  
 요나 의 누 의 요나 의 모 친 이 니 라

데 스 장

예수 다 시 바 다 가 에 서 그 르 치 실 시 혀 다 할 사

마가 복음

데 스 장

칠

룸이 모혀 들거늘 비에 올으샤 바다에 떠안지시니 모든 사름은  
바다를 곁흐야 언덕에 섰는지라 예수ㅣ 여러가지 비유로 무  
치실시 무치실 때에 날너콜으샤 디드를지어다 씨를 뿌리는  
이가 뿌리러나가서 뿌릴 때에 길가에 떠러진 씨는 시가 와서 주  
어먹고 흠이 적은 돌밭에 떠러진 씨는 흠이 깊지아 님으로 속  
히 움이나오나히 가씨가 면 쓸희가 박히지 못흐야 마르고 쏘가  
식덤불속에 떠러진 씨는 가씨가 자르매 숨이 막혀 열미를 밋지  
못흐고 도흔 땅에 떠러진 씨는 발흐며 자르결 실흠이 후삼십비  
도되고 옥십비도되고 백비도되는 나라흐시고 또 날너콜으샤  
터귀잇는 이들은 드를지어다 ○ 예수ㅣ 홀노 계실 때에 홀씨 잇  
던 사름들과 열두데즈들니 그 비유들을 무르니 예수ㅣ 터 답흐  
샤 터 런쥬나라의 오묘한 것슬너 회개는 주되외인의 개는 모

든거술비유로말하노니<sup>十二</sup>그들이보기는보아도아지못하고듯  
 기는들어도써듯지못하여다시오겨죄사함을얻을가두려워  
 하느니라<sup>十三</sup>하시고또골으샤디너회가이비유를써듯지못하느  
 나엇더케모든비유를알겠는<sup>十四</sup>썩리는쟈는도를썩리는거시  
 니<sup>十五</sup>길가에썩린다함은썩린도를사롱이드르매살단이곳와서  
 무<sup>十六</sup>음에썩린도를써앗는거시요돌<sup>十六</sup>작<sup>十六</sup>빛회썩린다함은사롱이도  
 를듯고곳깃거<sup>十七</sup>밧으<sup>十七</sup>나<sup>十七</sup>속에<sup>十七</sup>썩<sup>十七</sup>희<sup>十七</sup>가<sup>十七</sup>업<sup>十七</sup>서<sup>十七</sup>잠<sup>十七</sup>잔<sup>十七</sup>견<sup>十七</sup>디<sup>十七</sup>다<sup>十七</sup>가<sup>十七</sup>도<sup>十七</sup>의<sup>十七</sup>연  
 고로<sup>十八</sup>환<sup>十八</sup>난<sup>十八</sup>이<sup>十八</sup>나<sup>十八</sup>핍<sup>十八</sup>박<sup>十八</sup>을<sup>十八</sup>당<sup>十八</sup>하<sup>十八</sup>주<sup>十八</sup>슬<sup>十八</sup>혀<sup>十八</sup>브<sup>十八</sup>림<sup>十八</sup>이<sup>十八</sup>요<sup>十八</sup>가<sup>十八</sup>식<sup>十八</sup>가<sup>十八</sup>온<sup>十八</sup>티<sup>十八</sup>썩<sup>十八</sup>린  
 다<sup>十九</sup>함<sup>十九</sup>은<sup>十九</sup>곳<sup>十九</sup>사<sup>十九</sup>롱<sup>十九</sup>이<sup>十九</sup>도<sup>十九</sup>를<sup>十九</sup>드<sup>十九</sup>르<sup>十九</sup>되<sup>十九</sup>세<sup>十九</sup>상<sup>十九</sup>의<sup>十九</sup>넘<sup>十九</sup>려<sup>十九</sup>와<sup>十九</sup>지<sup>十九</sup>리<sup>十九</sup>의<sup>十九</sup>욕<sup>十九</sup>심<sup>十九</sup>과<sup>十九</sup>다  
 른<sup>二十</sup>물<sup>二十</sup>육<sup>二十</sup>이<sup>二十</sup>드<sup>二十</sup>려<sup>二十</sup>와<sup>二十</sup>그<sup>二十</sup>도<sup>二十</sup>를<sup>二十</sup>막<sup>二十</sup>아<sup>二十</sup>결<sup>二十</sup>실<sup>二十</sup>치<sup>二十</sup>못<sup>二十</sup>하<sup>二十</sup>게<sup>二十</sup>됨<sup>二十</sup>이<sup>二十</sup>요<sup>二十</sup>도<sup>二十</sup>흔<sup>二十</sup>쌍<sup>二十</sup>에  
 썩<sup>二十一</sup>린<sup>二十一</sup>다<sup>二十一</sup>함<sup>二十一</sup>은<sup>二十一</sup>사<sup>二十一</sup>롱<sup>二十一</sup>이<sup>二十一</sup>도<sup>二十一</sup>를<sup>二十一</sup>듯<sup>二十一</sup>고<sup>二十一</sup>밧<sup>二十一</sup>아<sup>二十一</sup>결<sup>二十一</sup>실<sup>二十一</sup>하<sup>二十一</sup>기<sup>二十一</sup>를<sup>二十一</sup>후<sup>二十一</sup>삼<sup>二十一</sup>십<sup>二十一</sup>비<sup>二十一</sup>도<sup>二十一</sup>되  
 고<sup>二十二</sup>륙<sup>二十二</sup>십<sup>二十二</sup>비<sup>二十二</sup>도<sup>二十二</sup>되고<sup>二十二</sup>빅<sup>二十二</sup>비<sup>二十二</sup>도<sup>二十二</sup>되느니라<sup>二十二</sup>하<sup>二十二</sup>서<sup>二十二</sup>더<sup>二十二</sup>라<sup>二十二</sup>○<sup>二十二</sup>또<sup>二十二</sup>골<sup>二十二</sup>으<sup>二十二</sup>샤<sup>二十二</sup>티<sup>二十二</sup>사

림이등을갓다가말아래나평상아래에나두고춧뒤우희는두  
 지안켓는나대개숨은거시드러나지아님이업고감촌거시나  
 타나지아님이업는니귀가있셔듯거든맛당이드를치어다  
 쟈○샤되듯는거슬삼갈지어다너희가님을혜아리는되로너  
 희도혜아림을밧을거시나라쇼너희를더주리니잇는사룸의  
 게는출거시오업는사룸의게는그잇는것시지라도쇼아스리  
 라○또글은샤되 려<sup>二六</sup> 쥬의나라는사룸이씨를싸에뿌림과又하<sup>二七</sup> 니  
 밤과낮스로자코니러나매씨가나셔자르되엇더케된줄은아  
 지못호는지라<sup>二八</sup> 싸이절노곡식을나게호매처음에는싸이나며  
 다음에는이삭이되고후에는이삭이독식을일우는니열미<sup>二九</sup> 녀  
 을씨에는곳<sup>三〇</sup> 낮슬쓰는거슨거무울씨가니룸이나라○또글은  
 샤되우리가 려<sup>三一</sup> 쥬의나라를엇더케비호며또무슴비유로씨

비유하랴 그 거시계조씨 할알파와 하니 쌍에 심을 때에 조씨 우  
 회모든 씨중에 데일작은 거시로 되심은 후에 조씨 모든 나  
 물보다 크고 또 흔큰 가지가 나서 날나가는 식들이 그그늘에 깃  
 드리는 나라 ○ 예수ㅣ 또이웃 할비유로 만히 너희들의게 도를  
 말씀 할심은 너희가 알아듯는 대로 할심 일너라 또 비유가 아나  
 면 말씀 아나 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는 그 데 조씨의게 다 풀어  
 날으시더라 ○ 날이 저물매 예수ㅣ 데 조드려 날너갈으샤 뒤 우  
 리가 더 언덕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너희들이 몫사름을 훑든 후  
 에 전파와 치예수로 할씨비에 올으고 또 다른 비들이 잇서와 치  
 하더니 광풍이 크게 나려나며 물결이 쳐비에 드러와 그득히 차  
 지는지라 예수ㅣ 비쉴회베기 하시고 주무시더니 데 조들이 예  
 수를 씨우며 큰으디 주여 우리가 죽게 될거슬 도라보지아니사  
 마가복음 ㉓ 데소장

는 니 잇가<sup>三九</sup>예수 | 썩여바를을썩지 지시며 바다드려클은샤디  
즈즈의게클은샤디엇저너희가 두려워하는냐너희가아적밋  
음이업느냐그들이심히두려워하여서로말하여클은디이는  
뉘기에바를파바다라도숭총하는냐흐더라

### 데오장

또바다건너편으로오샤가대랍디경에드러가실  
식<sup>二</sup>빅에서나오신후에곳샤귀들닌사름이무덤으로브러나오  
는거슬맛나시니<sup>三</sup>그가무덤속에살매능히미는사름이도모  
지업고사슬노도못흙은대<sup>四</sup>개여러번착고와사슬노미엿셔도  
사슬이썩히지고착고도썩여져못출내길드릴사름이업숨이  
요<sup>五</sup>또<sup>五</sup>향<sup>五</sup>상<sup>五</sup>밤과<sup>五</sup>낮으로<sup>五</sup>무<sup>五</sup>덤과<sup>五</sup>산에<sup>五</sup>잇<sup>五</sup>서<sup>五</sup>부<sup>五</sup>르<sup>五</sup>지<sup>五</sup>지<sup>五</sup>며<sup>五</sup>돌<sup>五</sup>노<sup>五</sup>재<sup>五</sup>몸  
을<sup>五</sup>상<sup>五</sup>하<sup>五</sup>더<sup>五</sup>니<sup>五</sup>멀<sup>五</sup>니<sup>五</sup>예<sup>五</sup>수<sup>五</sup>를<sup>五</sup>보<sup>五</sup>고<sup>五</sup>다<sup>五</sup>드<sup>五</sup>러<sup>五</sup>절<sup>五</sup>하<sup>五</sup>고<sup>五</sup>크<sup>五</sup>게<sup>五</sup>소<sup>五</sup>리<sup>五</sup>질<sup>五</sup>너<sup>五</sup>골

오티너 예수지극히 높으신 련주의 아들아나 너로더브러  
 무삼상관이잇는나 련주의일홈을의탁하야너 께근구하  
 노니나를고 께배마르쇼셔홈은 예수씨셔더드러골으샤되  
 샤귀너논그사름의게셔나오라호심이라이에무러골으사되  
 너 일홈은무엇시냐하시니골으티내일홈이레기온이니우리  
 가만혼연고 로이다하고예수씨근절이구하되이싸에내여쫓  
 지마르쇼셔하더니 못참거괴큰도야지셰가산것희셔먹거늘  
 여러샤귀들이다시근구하야골으티우리를보내여도야지셰  
 의게로드러가게하쇼셔하거늘 예수 허락하진되샤귀들이  
 나아가도야지셰의게로드러가니거진이천마리되는도야지  
 셰가비탈노느러닷고바다로드러가빠지거늘먹이던자 읍  
 님와손에다라나고하시니여러사름이나와무엇슬하엿는가볼  
 마가복음 ㉓ 데오장

십



시<sup>十五</sup>더들이 예수께서 나와 이왕사 귀들녘던 사<sup>十六</sup>름이 옷슬 입고  
 약히 앉젓슴을 보고 곳 두려워 할 터니 본자 | 귀신들녘던 사<sup>十七</sup>름  
 의 맛는 것과 못도 야지 일노 그들의 게고 할 터 그 사<sup>十八</sup>름들이 예수  
 드려 그 디경에 서셔 나 시기를 온 구 할 터 라 예수 | 비에 올으  
 실 때에 이왕 귀신들녘던 사<sup>十九</sup>름이 힘짜가기를 온 구 할 거 놀 예수  
 | 허락지 아니 시고 오직 더 드려 끌으샤 터 접으로 도라 가 주 |  
 엇 더 혼 큰 일 들을 내게 고평과 너를 불상히 너 이던 일 노 내 천 속 의  
 게고 할 라 하시 니 그 사<sup>二十</sup>름이 가셔 더 가 파 리에 서 브터 예수 썸셔  
 제 게 엇 더 게 할 신 큰 일 들을 전 파 하시 사<sup>二十一</sup>름들이 다 괴 이 히 녀 이  
 더 라 ○ 예수 | 비 례 두 시 고 다 시 더 편 언 덕 으 로 건 너 가 시 매 히  
 다 할 사<sup>二十二</sup>름이 모히 거 놀 이 예 바 다 가 에 게 시 더 니 회 당 맞 혼 의 로  
 라 할 그 이 가 와 서 예 수 를 보 고 니 발 아 태 업 터 여 온 절 이 구 할 야

곁으<sup>二二</sup>티내어린<sup>二三</sup>썩이죽게<sup>二四</sup>되엿스오니비<sup>二五</sup>움<sup>二六</sup>건<sup>二七</sup>티오<sup>二八</sup>셔<sup>二九</sup>셔<sup>三〇</sup>그<sup>三一</sup>우<sup>三二</sup>에  
 손<sup>三三</sup>을<sup>三四</sup>티<sup>三五</sup>여<sup>三六</sup>낫<sup>三七</sup>게<sup>三八</sup>ㅎ<sup>三九</sup>신<sup>四〇</sup>죽<sup>四一</sup>살<sup>四二</sup>겻<sup>四三</sup>는<sup>四四</sup>이<sup>四五</sup>다<sup>四六</sup>ㅎ<sup>四七</sup>거<sup>四八</sup>늘<sup>四九</sup>예<sup>五〇</sup>수<sup>五一</sup>—<sup>五二</sup>ㅎ<sup>五三</sup>가<sup>五四</sup>지<sup>五五</sup>가<sup>五六</sup>실<sup>五七</sup>시  
 히<sup>五八</sup>다<sup>五九</sup>ㅎ<sup>六〇</sup>사<sup>六一</sup>툼<sup>六二</sup>이<sup>六三</sup>또<sup>六四</sup>옹<sup>六五</sup>위<sup>六六</sup>ㅎ<sup>六七</sup>야<sup>六八</sup>쫛<sup>六九</sup>더<sup>七〇</sup>라<sup>七一</sup>○<sup>七二</sup>또<sup>七三</sup>열<sup>七四</sup>무<sup>七五</sup>히<sup>七六</sup>를<sup>七七</sup>혈<sup>七八</sup>루<sup>七九</sup>ㅎ<sup>八〇</sup>던<sup>八一</sup>녀  
 인<sup>八二</sup>ㅎ<sup>八三</sup>나<sup>八四</sup>이<sup>八五</sup>잇<sup>八六</sup>스<sup>八七</sup>니<sup>八八</sup>여<sup>八九</sup>러<sup>九〇</sup>의<sup>九一</sup>원<sup>九二</sup>의<sup>九三</sup>게<sup>九四</sup>심<sup>九五</sup>히<sup>九六</sup>괴<sup>九七</sup>로<sup>九八</sup>옴<sup>九九</sup>을<sup>一〇〇</sup>밧<sup>一〇一</sup>앗<sup>一〇二</sup>고<sup>一〇三</sup>또<sup>一〇四</sup>ㅎ<sup>一〇五</sup>잇  
 던<sup>一〇六</sup>거<sup>一〇七</sup>술<sup>一〇八</sup>다<sup>一〇九</sup>히<sup>一一〇</sup>비<sup>一一一</sup>ㅎ<sup>一一二</sup>엿<sup>一一三</sup>시<sup>一一四</sup>되<sup>一一五</sup>나<sup>一一六</sup>음<sup>一一七</sup>이<sup>一一八</sup>업<sup>一一九</sup>고<sup>一二〇</sup>증<sup>一二一</sup>세<sup>一二二</sup>가<sup>一二三</sup>도<sup>一二四</sup>로<sup>一二五</sup>혀<sup>一二六</sup>중<sup>一二七</sup>ㅎ<sup>一二八</sup>던<sup>一二九</sup>츠  
 이<sup>一三〇</sup>라<sup>一三一</sup>예<sup>一三二</sup>수<sup>一三三</sup>의<sup>一三四</sup>형<sup>一三五</sup>ㅎ<sup>一三六</sup>신<sup>一三七</sup>일<sup>一三八</sup>을<sup>一三九</sup>듯<sup>一四〇</sup>고<sup>一四一</sup>몫<sup>一四二</sup>사<sup>一四三</sup>룸<sup>一四四</sup>가<sup>一四五</sup>온<sup>一四六</sup>티<sup>一四七</sup>섯<sup>一四八</sup>겨<sup>一四九</sup>와<sup>一五〇</sup>셔<sup>一五一</sup>뒤<sup>一五二</sup>으<sup>一五三</sup>로  
 그<sup>一五四</sup>옷<sup>一五五</sup>슬<sup>一五六</sup>문<sup>一五七</sup>지<sup>一五八</sup>기<sup>一五九</sup>는<sup>一六〇</sup>제<sup>一六一</sup>가<sup>一六二</sup>글<sup>一六三</sup>으<sup>一六四</sup>티<sup>一六五</sup>내<sup>一六六</sup>다<sup>一六七</sup>만<sup>一六八</sup>그<sup>一六九</sup>의<sup>一七〇</sup>옷<sup>一七一</sup>만<sup>一七二</sup>문<sup>一七三</sup>져<sup>一七四</sup>도<sup>一七五</sup>나<sup>一七六</sup>으<sup>一七七</sup>리  
 라<sup>一七八</sup>ㅎ<sup>一七九</sup>일<sup>一八〇</sup>너<sup>一八一</sup>니<sup>一八二</sup>혈<sup>一八三</sup>루<sup>一八四</sup>가<sup>一八五</sup>긧<sup>一八六</sup>마<sup>一八七</sup>르<sup>一八八</sup>매<sup>一八九</sup>제<sup>一九〇</sup>곰<sup>一九一</sup>애<sup>一九二</sup>병<sup>一九三</sup>이<sup>一九四</sup>나<sup>一九五</sup>은<sup>一九六</sup>줄<sup>一九七</sup>을<sup>一九八</sup>써<sup>一九九</sup>듯<sup>二〇〇</sup>는<sup>二〇一</sup>지  
 라<sup>二〇二</sup>예<sup>二〇三</sup>수<sup>二〇四</sup>—<sup>二〇五</sup>긧<sup>二〇六</sup>그<sup>二〇七</sup>권<sup>二〇八</sup>능<sup>二〇九</sup>이<sup>二一〇</sup>즈<sup>二一一</sup>괴<sup>二一二</sup>몸<sup>二一三</sup>으<sup>二一四</sup>로<sup>二一五</sup>브<sup>二一六</sup>터<sup>二一七</sup>나<sup>二一八</sup>간<sup>二一九</sup>줄<sup>二二〇</sup>을<sup>二二一</sup>아<sup>二二二</sup>시<sup>二二三</sup>고<sup>二二四</sup>몫<sup>二二五</sup>사<sup>二二六</sup>룸  
 가<sup>二二七</sup>온<sup>二二八</sup>티<sup>二二九</sup>셔<sup>二三〇</sup>도<sup>二三一</sup>라<sup>二三二</sup>보<sup>二三三</sup>아<sup>二三四</sup>글<sup>二三五</sup>으<sup>二三六</sup>샤<sup>二三七</sup>티<sup>二三八</sup>누<sup>二三九</sup>가<sup>二四〇</sup>내<sup>二四一</sup>옷<sup>二四二</sup>슬<sup>二四三</sup>문<sup>二四四</sup>젧<sup>二四五</sup>는<sup>二四六</sup>냐<sup>二四七</sup>ㅎ<sup>二四八</sup>시<sup>二四九</sup>니<sup>二五〇</sup>데  
 즈<sup>二五一</sup>들<sup>二五二</sup>이<sup>二五三</sup>엿<sup>二五四</sup>즈<sup>二五五</sup>오<sup>二五六</sup>티<sup>二五七</sup>몫<sup>二五八</sup>사<sup>二五九</sup>룸<sup>二六〇</sup>이<sup>二六一</sup>옹<sup>二六二</sup>위<sup>二六三</sup>ㅎ<sup>二六四</sup>는<sup>二六五</sup>거<sup>二六六</sup>술<sup>二六七</sup>보<sup>二六八</sup>시<sup>二六九</sup>며<sup>二七〇</sup>누<sup>二七一</sup>가<sup>二七二</sup>내<sup>二七三</sup>옷<sup>二七四</sup>슬  
 문<sup>二七五</sup>지<sup>二七六</sup>는<sup>二七七</sup>냐<sup>二七八</sup>부<sup>二七九</sup>르<sup>二八〇</sup>시<sup>二八一</sup>는<sup>二八二</sup>니<sup>二八三</sup>잇<sup>二八四</sup>가<sup>二八五</sup>예<sup>二八六</sup>수<sup>二八七</sup>—<sup>二八八</sup>이<sup>二八九</sup>일<sup>二九〇</sup>형<sup>二九一</sup>ㅎ<sup>二九二</sup>녀<sup>二九三</sup>인<sup>二九四</sup>을<sup>二九五</sup>보<sup>二九六</sup>고<sup>二九七</sup>져<sup>二九八</sup>ㅎ  
 마<sup>二九九</sup>가<sup>三〇〇</sup>복<sup>三〇一</sup>음  
 네<sup>三〇二</sup>오<sup>三〇三</sup>장  
 십<sup>三〇四</sup>일

여들너보시니<sup>三三</sup>그녀인이제게<sup>三三</sup>하신일을알고<sup>三三</sup>두려워하여<sup>三三</sup>즐며  
 압희업되<sup>三三</sup>여실상으로<sup>三三</sup>다엇조오니<sup>三三</sup>예수<sup>三三</sup>골으샤<sup>三三</sup>되녀<sup>三三</sup>조야<sup>三三</sup>너  
 의<sup>三三</sup>밋음어<sup>三三</sup>너를<sup>三三</sup>낫게<sup>三三</sup>하엿스니<sup>三三</sup>평안<sup>三三</sup>이가<sup>三三</sup>라<sup>三三</sup>너의<sup>三三</sup>병<sup>三三</sup>이나<sup>三三</sup>으리라<sup>三三</sup>하  
 시<sup>三三</sup>더라<sup>三三</sup>○<sup>三三</sup>말<sup>三三</sup>씀<sup>三三</sup>하<sup>三三</sup>실<sup>三三</sup>때<sup>三三</sup>에<sup>三三</sup>사<sup>三三</sup>름<sup>三三</sup>이<sup>三三</sup>회<sup>三三</sup>당<sup>三三</sup>맛<sup>三三</sup>흔<sup>三三</sup>자<sup>三三</sup>의<sup>三三</sup>집<sup>三三</sup>에<sup>三三</sup>셔<sup>三三</sup>와<sup>三三</sup>클으<sup>三三</sup>되  
 너<sup>三三</sup>의<sup>三三</sup>즐<sup>三三</sup>이<sup>三三</sup>죽<sup>三三</sup>은<sup>三三</sup>지<sup>三三</sup>라<sup>三三</sup>엇<sup>三三</sup>지<sup>三三</sup>션<sup>三三</sup>성<sup>三三</sup>을<sup>三三</sup>괴<sup>三三</sup>롭<sup>三三</sup>게<sup>三三</sup>하<sup>三三</sup>는<sup>三三</sup>표<sup>三三</sup>하<sup>三三</sup>거<sup>三三</sup>늘<sup>三三</sup>예<sup>三三</sup>수<sup>三三</sup>  
 이<sup>三三</sup>말<sup>三三</sup>을<sup>三三</sup>듣<sup>三三</sup>드<sup>三三</sup>르<sup>三三</sup>시<sup>三三</sup>고<sup>三三</sup>회<sup>三三</sup>당<sup>三三</sup>맛<sup>三三</sup>흔<sup>三三</sup>자<sup>三三</sup>드<sup>三三</sup>려<sup>三三</sup>닐<sup>三三</sup>너<sup>三三</sup>클으<sup>三三</sup>샤<sup>三三</sup>되<sup>三三</sup>두<sup>三三</sup>려<sup>三三</sup>워  
 하<sup>三三</sup>지<sup>三三</sup>말<sup>三三</sup>고<sup>三三</sup>오<sup>三三</sup>직<sup>三三</sup>밋<sup>三三</sup>을<sup>三三</sup>지<sup>三三</sup>니<sup>三三</sup>라<sup>三三</sup>하<sup>三三</sup>시<sup>三三</sup>고<sup>三三</sup>예<sup>三三</sup>수<sup>三三</sup>○<sup>三三</sup>페<sup>三三</sup>득<sup>三三</sup>과<sup>三三</sup>아<sup>三三</sup>각<sup>三三</sup>과<sup>三三</sup>아<sup>三三</sup>각<sup>三三</sup>의<sup>三三</sup>  
 동<sup>三三</sup>성<sup>三三</sup>요<sup>三三</sup>한<sup>三三</sup>외<sup>三三</sup>에<sup>三三</sup>다<sup>三三</sup>른<sup>三三</sup>사<sup>三三</sup>름<sup>三三</sup>은<sup>三三</sup>스<sup>三三</sup>라<sup>三三</sup>오<sup>三三</sup>를<sup>三三</sup>허<sup>三三</sup>락<sup>三三</sup>지<sup>三三</sup>아<sup>三三</sup>니<sup>三三</sup>하<sup>三三</sup>시<sup>三三</sup>고<sup>三三</sup>회<sup>三三</sup>당<sup>三三</sup>맛<sup>三三</sup>흔  
 자<sup>三三</sup>의<sup>三三</sup>집<sup>三三</sup>에<sup>三三</sup>가<sup>三三</sup>시<sup>三三</sup>니<sup>三三</sup>부<sup>三三</sup>르<sup>三三</sup>지<sup>三三</sup>며<sup>三三</sup>녀<sup>三三</sup>러<sup>三三</sup>히<sup>三三</sup>동<sup>三三</sup>곡<sup>三三</sup>하<sup>三三</sup>여<sup>三三</sup>숨<sup>三三</sup>흙<sup>三三</sup>을<sup>三三</sup>이<sup>三三</sup>괴<sup>三三</sup>지  
 못<sup>三三</sup>하<sup>三三</sup>거<sup>三三</sup>늘<sup>三三</sup>보<sup>三三</sup>시<sup>三三</sup>고<sup>三三</sup>드<sup>三三</sup>려<sup>三三</sup>가<sup>三三</sup>실<sup>三三</sup>제<sup>三三</sup>골으<sup>三三</sup>샤<sup>三三</sup>되<sup>三三</sup>너<sup>三三</sup>희<sup>三三</sup>가<sup>三三</sup>엇<sup>三三</sup>지<sup>三三</sup>부<sup>三三</sup>르<sup>三三</sup>지<sup>三三</sup>지  
 며<sup>三三</sup>동<sup>三三</sup>곡<sup>三三</sup>는<sup>三三</sup>나<sup>三三</sup>이<sup>三三</sup>으<sup>三三</sup>히<sup>三三</sup>가<sup>三三</sup>죽<sup>三三</sup>지<sup>三三</sup>아<sup>三三</sup>니<sup>三三</sup>코<sup>三三</sup>자<sup>三三</sup>는<sup>三三</sup>니<sup>三三</sup>라<sup>三三</sup>하<sup>三三</sup>시<sup>三三</sup>니<sup>三三</sup>사<sup>三三</sup>름<sup>三三</sup>들<sup>三三</sup>  
 이<sup>三三</sup>비<sup>三三</sup>웃<sup>三三</sup>거<sup>三三</sup>늘<sup>三三</sup>예<sup>三三</sup>수<sup>三三</sup>○<sup>三三</sup>크<sup>三三</sup>들<sup>三三</sup>을<sup>三三</sup>내<sup>三三</sup>어<sup>三三</sup>보<sup>三三</sup>내<sup>三三</sup>신<sup>三三</sup>후<sup>三三</sup>계<sup>三三</sup>집으<sup>三三</sup>희<sup>三三</sup>의<sup>三三</sup>부<sup>三三</sup>모<sup>三三</sup>와

15  
쓰라간 데 즈들 만드 리 시 고 계 집 으 희 누 은 곳 에 드 러 가 샤 그 손  
을 잡고 글 으 샤 디 대 리 대 고 미 라 호 시 니 번 역 호 면 곳 계 집 으 희  
야 내 네 계 명 호 노 니 니 러 나 라 호 심 이 라 계 집 으 희 가 곳 니 러 나  
셔 거 르 니 쟈 에 나 히 열 두 설 이 라 못 사 름 이 곳 놀 내 고 미 우 이 상  
히 녀 이 거 놀 예 수 | 그 들 의 깨 엄 히 경 계 호 샤 디 사 름 으 로 알 게  
호 지 마 라 호 시 고 이 에 명 호 야 무 어 스 로 써 계 집 으 희 를 먹 이 라  
호 시 다

**데 룩 장**

예 수 | 거 괴 를 썬 나 샤 고 향 으 로 도 라 가 실 식 예 즈  
들 이 좃 더 라 사 밧 날 이 니 르 때 예 수 | 회 당 에 서 그 르 치 시 기 를  
시 작 호 시 니 여 러 히 듯 고 괴 히 녀 여 쿨 으 디 어 사 름 이 어 디 셔  
이 러 흙 을 엮 엮 는 뇨 쏘 품 부 훈 지 혜 가 무 엮 시 나 쏘 이 런 능 흙  
을 그 의 손 으 로 호 는 거 시 무 슘 쏘 시 냐 이 가 마 리 아 의 아 들 목  
마 가 복 음  
데 룩 장  
십 이

슈가 안니며 아 각과 요셔와 유대와 셔문의 형에 아니며 그 누의  
 들이 우리와 니웃시아나 호고 슬허 브리거늘 예수 | 골으샤 디  
 션지자도 제식골파 일가와 집안외에는 존경치안는 이 업섯는  
 니라 예수 | 거괴셔는 능함을 행치 못하시되 오직 손으로 두어  
 병인을 문져 곳치시고 또 더희들이 밋지아 남으로 괴이히 녀이  
 시더라 ○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든니시며 큰 처시더라 ○ 예수  
 | 열두데즈를 불러 돌식작하여 보내 살셔사 귀제어 하는 권능  
 을 주시고 명하샤 디로즈는 가지지 말고 지팡이만 가지며 양식  
 도 말고 전디도 말고 주면 이에 금도 냇치 말며 신만 들메고 가되  
 두벌 옷 손님 지 말나 하시고 또 골으샤 디어 디던지 집에 드러가  
 거든 거괴를 써나기 사지류하여 라너를 디 접지 아니하시며 너를  
 듯지안는 곳 잇거든 거괴셔 날때에 밭에 몬지를 써러 브려어

러사롬의 증거를 삼으라내 데즈들이나 아가사롬들이 회회  
 도를 전하고 소귀신들을 쫓쳐며 기름으로 병든 사롬들의  
 나다 곳 처더라 ○ 이에 예수 의 성명이 과다 한지라 회회왕이  
 고 콜으 티이 는 세레 주던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난고로 이  
 린 권능을 예수로 칭한다 고 잇던 이 는 콜으 티이 가 이 리 아  
 라 하고 또 다 든 이 는 콜으 티이 는 선지자 니 선지 중 에 하나  
 와 혼듯하다 고 되 회회를 이 말을 듯고 콜으 티이 는 내 가 목 베  
 한 이 다시 살았다 고 논지라 처음에 회회를 이 동성 비 려 의 안 회  
 라 저를 위하야 사롬을 보내여 요한을 잡아 옥에 가 돔은 대 회  
 를 이 그 계집의 계장 가 들 나 혼 이 라 요한 이 회 회 의 계 간 하  
 으 티 동성 의 안 회 를 취 함 이 을 처 안 타 고 었 더 니 회 라 저 가 이  
 닷으로 요한을 원 망 하여 죽이 고 저 하 되 하 지 못 혼은 대 회

마가복음

데륙장

십삼

이요한을 의 잇고 울 혼 사 롬으로 알 아 무셔 위 호 고 호 호 며 그 말  
 을 드려 여러 가지 를 힘 호 고 또 뜻 기 를 즐 거 워 호 일 너 니 모 츄 승  
 극 호 날 이 도 라 왔 시 니 회 를 이 제 성 일 에 연 석 을 배 플 고 모 든 대  
 부 와 백 부 장 파 가 리 리 의 회 인 들 을 청 호 지 라 회 라 저 의 설 이 도  
 러 와 츄 을 쉼 어 회 를 파 또 호 제 안 진 사 롬 들 을 깃 부 게 호 나 왕 이  
 그 녀 즈 드 러 글 으 디 무 엇 시 던 지 너 의 원 호 는 것 슬 날 드 러 달 나  
 호 면 주 리 라 호 고 또 <sup>호</sup> 밍 세 호 디 무 엇 시 던 지 날 드 러 달 나 호 는 거  
 슌 비 록 내 나 라 의 반 을 달 나 호 여 도 내 너 를 주 리 라 호 거 놀 너 즈  
 | 나 아 가 그 어 맘 드 러 글 으 디 내 가 무 엇 슬 달 나 호 리 잇 가 그 어  
 맘 이 큰 으 디 세 레 주 던 요 한 의 머 리 를 달 나 호 여 타 그 <sup>호</sup> 녀 즈 | 곳  
 왕 의 계 급 히 드 러 가 구 호 여 글 으 디 세 레 주 던 요 한 의 머 리 를 쇼  
 반 에 담 어 직 금 나 주 기 를 원 호 읊 느 이 다 호 너 왕 이 심 히 근 심 호





기를 시작하시더라 날이느<sup>三五</sup>지매 대저들이 예수께 나아와 엿조  
 오디이곳시들이요 날이느<sup>三六</sup>졌스니 더사롬들을보내여촌으로  
 두루둔니며먹을거슬사게하옵쇼셔<sup>三七</sup> 예수 | 디답하시되너회  
 가먹을거슬줄지니라하시니다시엿조오디우리가가셔이십  
 량으로썩을사셔주어먹이리엇가<sup>三八</sup> 예수 | 날이샤되너회게썩  
 몇덩이나잇느냐가보라하시니알아보고큰<sup>三九</sup>디떡다섯덩이  
 와성션두마리가잇디이다하<sup>四〇</sup>거늘드디여메저를명하시그사롬  
 들을썩지어푸른플우희안치라하시니<sup>四一</sup>츠레로안철식백식도  
 안고쉬힌식도안진지라<sup>四二</sup> 예수 | 떡다섯덩이와성션두마리를  
 가지사하늘을우러러축슈하시고썩여메저를주어여러사롬  
 압회베플게하시고또성션두마리로여러사롬가온디셔는화  
 주시니다<sup>四三</sup> 먹고<sup>四四</sup> 베풀<sup>四五</sup> 지라그<sup>四六</sup> 남은부스러기와<sup>四七</sup> 남은성션을

주으니 열 두 광 주리에 그 두 항고 석을 먹은 이가 오천 사람 일너  
 라 ○ 예수 께 데즈를 저축하야 비에 올으게 하샤 못사 롭을 훗터  
 보낼 동안에 즈괴 보다 몬져 더편으로 백시대 에 가라 하시고 못  
 사 롭을 훗은 후에 괴도 항려 산으로 가시 다 저 녀이 되엿사 비  
 는 바다가 온 디 잇고 예수는 홀 노 못헤 계신 지라 데즈 들이 토젓  
 기를 괴로히 훗을 보시 다 바 롭이 거스 님이라 밤스 경 썸되 여 예  
 수 께 바다 우흐로 거러 가 실식 그 들을 지나 가고 저 하 시 니 데즈  
 들이 예수 켜셔 바다 우흐로 거러 오심을 보고 요 물인 가 하야 부  
 르지 짐은 더 희가 다 예수 를 보고 놀 남이 라 이에 예수 께 데즈 보  
 러 말 숨 하 시 며 또 날 너 글으 샤 타 안 심 하 여 라 이 내 니 두 려 워 말  
 나 하 시 고 이 에 비 에 오 르 시 니 바 롭이 곳 곳 치 는 지 라 데즈 들이  
 무 음 에 미 우 이 상 히 녀 임 은 더 희 무 음 이 완 하 야 석 썰 여 주 시 던  
 마 가 복 음

데 륭 장

십 오

일을 써 닦지 못함 일 너라 ○ 임의 건너 혀니 살륙싸에 니르러 언  
덕에 다히고 비<sup>五四</sup>에 서나 가시니 곳 비성들이 알고 스방<sup>五五</sup>으로 들어  
돈니며 요으로 병든 사 롱을 매고 예수 제 신 곳 슬 드르 면 나 아 오  
고 또 아모 티 나 예수 드 러 가 시 는 곳 에 는 마 을 이 던 지 성 이 던 지  
식 골 이 던 지 병 든 사 롱 을 저 저 에 두 고 그 옷 단 만 던 지 기 를 군 구  
하야 먼 지 는 이 는 다 닳 더 라

### 데 칠 장

야로 살림으로 좃차 오논 법 리 서 사 롱 과 서 사 관 멧  
치 모 혀 예 수 씨 나 아 와 그 데 저 두 어 사 롱 이 더 러 온 손 으 로 썩 먹  
는 거 슬 보 앓 시 니 더 러 온 손 은 곳 썩 지 아 님 이 라 대 개 법 리 서 와  
유 래 사 롱 들 이 냇 사 롱 의 유 전 흥 을 고 점 하 야 그 손 을 정 히 썩 지  
아 니 면 먹 지 안 코 또 저 저 로 브 터 도 라 와 썩 지 아 니 면 먹 지 안 코  
또 여 러 가 지 를 직 혀 오 는 거 시 잇 서 잔 과 쥬 발 과 구 리 그릇 을 썩

숨일너라이에 법리서사롭과셔사판들이에수세무러클으터  
 엇지할야네의데즈는넷사롭의유전을준히치아니하고더러  
 온손으로떡을먹는노항거늘예수 | 그들의게글으샤디이셔  
 아가너회거조착한테항는자를미리말흔거시을도다기록항  
 엇스되이백성들이더회입살노는나를존경항되오직더회무  
 움은내게서멀다하고다만나를헛되이송비움은사롭의식인  
 거스로도를삼아그르침이라너회가 려쥬의게명은브리고  
 사롭의유전움을고집항는도다항시고또글으샤디너회가너  
 희유전을직희는거시진실노 려쥬의게명을져보렘이니  
 대개마셔 | 글으디네아바니와네어마니를존경하라하고또  
 글으더아바니와어마니를제방항는자는죽인다항엇거늘오직  
 너희는글으디후한사롭이제아바니나제어마니의게말항되부

마가복음  
 데칠장

십륙

모님께 드리랴던 거슬 각 관하셨는 이다 하라 하시니 번역하면  
 된 주셔 드렸습는 니다 흠이라 그 후에 는 제 아바니 나 어마니께  
 아모 거시 락도 봉양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너희가 밧고 쥬  
 는 바 유전으로 된 주의 도름 패함이 라니 회가 이긋 혼 일을 만  
 히 칭하는 니라 하시고 밧사 롬을 다시 불너 날의 샹티 너희는 다  
 내 말을 듯고 쟈다 틀지 어다 므릿사 롬의 밧고 로 브터 드러 오는  
 거 손 능히 사 롬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오직 안흐로 브터 나오는  
 그 거시 사 롬을 더럽게 하시니 아모 사 롬이 나 귀가 잇서 드들자  
 는 듯게 하여라 예수 | 밧사 롬을 쟈나 집으로 드러 가시니 예  
 들이 이 비 유를 못조 온 디 예수 | 콜의 샹티 너희도 니러 쟈  
 지 못하는 나무 잇시던 지 밧고 로 브터 드러 가는 거시 능히 사 롬을  
 더럽게 하지 못함은 그 밧음으로 드러 가지 아니하고 비로 드러

가매 뒤로 내 여 버리는 연 고를 너 희가 아 지 못하 는 나 하 시 니 이  
 말 숨은 먹 은 거 슬 다 써 닳 아 게 흔 다 하 심 이 라 쏘 글 으 샤 되 사 롬  
 으 로 브 러 나 오 는 거 시 곳 사 롬 을 더 럽 게 하 는 니 대 개 안 흐 로 조  
 차 나 오 은 곳 사 롬 의 마 음 으 로 조 차 나 오 미 라 악 훈 성 각 과 음 란  
 홈 과 도 적 질 홈 과 살 인 홈 과 통 간 홈 과 담 욕 과 악 홈 과 속 임 과 음  
 랑 홈 과 질 시 와 욕 홈 과 교 만 홈 과 광 꺾 홈 이 니 이 모 든 악 훈 거 시  
 다 안 흐 로 조 차 나 와 사 롬 을 더 럽 히 는 니 라 ○ 예 수 一 거 과 서 니  
 러 나 샤 추 라 와 셔 둔 디 경 에 니 르 러 훈 집 에 드 러 가 게 시 고 사 롬  
 의 게 알 니 고 저 아 니 서 나 은 휘 처 못 하 는 지 라 못 출 훈 녀 인 이 있  
 서 그 어 린 딸 이 샤 귀 를 들 녀 는 지 라 예 수 의 일 을 듯 고 와 셔 그 발  
 아 래 엮 티 리 니 그 녀 인 은 희 리 니 사 롬 이 니 셔 리 비 니 괴 족 속 이  
 라 제 딸 의 게 셔 마 귀 닳 차 주 시 기 틀 예 수 썩 근 구 하 거 늘 예 수 一

마가복음

데칠장

십칠

날 너 곧으샤 디으희 들 노문 저 니 볼 니 먹 게 흘 지 니 대 개 으희 들  
 의 썩 을 취 향 야 개 들 의 개 너 짐 이 을 치 안 타 향 신 디 너 인 이 디 답  
 향 여 곧 으 디 쥬 여 을 소 이 다 마 는 개 들 도 상 아 래 에 서 으희 들 의  
 썩 러 버 리 는 부 소 력 이 를 었 어 먹 는 니 이 다 예 수 | 곧 으샤 디 이  
 말 을 인 향 야 가 라 마 귀 가 임 의 네 썩 의 게 서 썩 낫 는 니 라 향 시 니  
 너 인 이 집 에 도 라 간 쥬 썩 이 요 에 누 었 고 마 귀 가 임 의 나 감 을 볼  
 너 라 ○ 예 수 | 다 시 쥬 라 디 경 을 썩 나 샤 세 돈 으 로 가 리 리 히 변  
 에 니 르 러 더 가 파 리 다 경 안 흐 로 지 나 실 식 귀 먹 고 혀 오 그 러  
 진 사 롬 을 드 리 고 예 수 썩 나 아 와 손 으 로 문 저 주 시 기 를 근 구 향  
 거 늘 예 수 | 그 사 롬 을 드 리 고 밋 사 롬 을 썩 나 샤 종 용 훈 곳 에 니  
 르 러 손 가 락 으 로 그 귀 에 넷 코 춤 밧 라 그 혀 에 바 르 시 며 하 늘 을  
 우 러 러 탄 식 향 야 곧 으샤 디 이 법 대 라 향 시 니 번 역 향 면 곳 열 니

19  
라 하심 나라 귀가 열리고 혀에 밧친 거시 풀녀 말이 분명 호지라  
예수 | 너희 드러 아모 사람의 게라도 날으지 말나고 경계 하시  
되 경계 하심 수록 너희가 더욱 크게 견파 하시 여러 사람이 심히  
놀내여 끌으되 그가 모든 것을 다 잘 하느도 다 귀 먹은 자로도 듯  
게 하고 병어리 된 자로도 말하게 한다 하더라

### 데 팔 장

그새에 허다한 사육이다 시잇서 먹을 거시 업는

지라 예수 | 데즈를 불녀 끌으샤 되 내가 못사 롱을 민망이 너이  
노니 너희가 사흘을 날과 훑싸 하되 먹은 거시 업스니 만일 내가  
더 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곤비 하리니 그중에 멀니셔  
온 사람이 잇슴이로다 하신되 데즈들이 되 답하 여 끌으되 들에  
셔 우리가 었더 케 석을 었어 이 사람들 을 녀 녀 이 먹 리 잇가 예수  
| 무르시 되 너 희 게 석 몇 덩 이 나 잇느냐 하사 니 끌으되 날 곱이

마가 복음 데 팔 장

십팔



로 소이다 하거늘 예수 | 못사롬을 명하샤 싸우에 안게 하시고  
 그 석닐곱덩아를 가지샤 축슈하시고 세여 데즈의게 주어 여려  
 사롬압회 못케 하시니 데즈들이 못사롬압회 버려 못케 놀소적  
 은 성션득어 마리가 있는지라 또 흘축슈하시고 명하샤 이것도  
 그들압회 못케 하시니 다빅불나 먹고 그놈유브스력이 될주으  
 니 닐곱바금이 오사롬은 스천명 씌되는지라 예수 | 다 훗터보  
 내시고 곳대즈들노 흠써 비게 올으샤 대마노대 디경에 드러가  
 시니라 ○ 변이시사 록들이 또 나와 예수 썬힐문하기를 시작  
 하야 하논노셔나온 표적을 추지며 시험하거늘 예수 | 만음속  
 에 김희란식하샤 글으샤 티엇지 하야이 세상이 표적을 좃느냐  
 내실노니 회개닐으노니 이세상에 표적을 뵈이지 아니리라 하  
 시고 그 사롬들을 썬나샤 다시 비에 올라 더편 언덕으로 가시다

○ 데즈들이 석가져오기를 니젧스매 비에 석호명이외에 노더업  
 논지라 <sup>十一</sup> 예수 | 그 들을 명호야 <sup>十二</sup> 크으샤 <sup>十三</sup> 티삼가 <sup>十四</sup> 법리세사 <sup>十五</sup> 롱의누  
 롱과 희롱의 누 롱을 막으라 호신디 <sup>十六</sup> 데즈들이 서로 의론호야 <sup>十七</sup> 글  
 으터이노우리게 석이 업습인가 호더니 <sup>十八</sup> 예수 | 알으시고 <sup>十九</sup> 글으  
 샤디너희가 엿지 석이 업습으로써 의론호는 나지 <sup>二十</sup> 금서지아지  
 못호며 <sup>二十一</sup> 샨디지 못호는 나너희마음이 완홀이나너희가 눈이 있  
 서도 보지 못호며 귀가 잇서도 듣지 못호며 또 <sup>二十二</sup> 괴역지도 못호는  
 나 <sup>二十三</sup> 내가 다스던이 석을 쉼여오 천사 롱중에 난호매 <sup>二十四</sup> 늬은부스럭  
 이를 주어 <sup>二十五</sup> 몇광주리에 담앗더나 <sup>二十六</sup> 크으디 열들이 니이다 <sup>二十七</sup> 또닐곱명  
 이를 스천사 롱중에 난호매 <sup>二十八</sup> 늬은부스럭 이를 주어 <sup>二十九</sup> 몇바금이에  
 담앗더나 <sup>三十</sup> 크으디닐곱이 니이다 <sup>三十一</sup> 크으샤 <sup>三十二</sup> 티아 <sup>三十三</sup> 직쎨 <sup>三十四</sup> 닳지 못호는  
 나 <sup>三十五</sup> ○ 또 <sup>三十六</sup> 빅셔 <sup>三十七</sup> 대싸에 <sup>三十八</sup> 니르시니 <sup>三十九</sup> 사 <sup>四十</sup> 롱들이 <sup>四十一</sup> 쇼 <sup>四十二</sup> 경호 <sup>四十三</sup> 나 <sup>四十四</sup> 를 <sup>四十五</sup> 드 <sup>四十六</sup> 리 <sup>四十七</sup> 고 <sup>四十八</sup> 예 <sup>四十九</sup> 수 <sup>五十</sup> 쎨  
 마가복음 三三 데팔장

— 십구

나 아와 문지 시기를 구할 것 같<sup>三</sup> 예수 | 쇼경의 손을 붓드 시고 마  
 을 밧그로 나가 샬눈에 춤을 밧트 시며 손으로 문지 시고 무르샤  
 뒤 아모 거시 나 뵈이 는 나 향 서 니 우러 러 보며 글으 디 배 가 사 롱  
 들 을 보 니 거 러 가 는 거 시 나 무 와 꺾 치 뵈 이 는 이 다 향 거 놀<sup>五</sup> 그 눈  
 을 다 시 문 지 시 매 제 가 한 춤 우 러 러 보 더 니 는 음 을 엿 어 셔 온 것  
 물 건 을 다 뵈 히 보 는 지 라 예 수 | 그 사 롱 을 제 집 으 로 보 내 며 글  
 으 샬 디 마 을 노 또 드 러 가 지 말 나 향 서 더 라 ○ 예 수 | 예 즈 들 노  
 옴 세 히 살 리 아 비 립 비 모 든 마 을 에 드 러 가 실 시 로 중 에 서 예 즈  
 들 드 러 무 러 글으 샬 디 남 들 이 나 를 누 구 라 말 향 더 나 엿<sup>六</sup> 즈 와  
 글으 디 세 례 주 던 요 한 이 라 향 고 엿 던 아 논 히 리 아 | 라 향 고 또  
 다 른 이 는 선 지 중 에 향 나 니 라 향 더 이 다 향 나 또 무 러 글으 샬 디  
 니 희 는 나 를 누 구 라 향 는 나 피 득 이 디 답 향 역 글으 디 주 는 피 득

이니 다 호거늘 <sup>五十一</sup>경게 하샤 디아 모사 롬의 게도 고치 말나 호시 디  
 라 또 곧 르치 시기를 시작 호샤 곧 으샤 디 인즈 | 반 드시 여 러가  
 지해를 밧고 장로와 제스제장 파셔사 관들의 게 브림이 되여 또  
 죽엇다가 사흘 후에 다시 니러 나리라 호샤 이말 숨골 명히 호  
 서니 피득이 예수 의 손을 잡고 비로 소간 호거늘 <sup>五十二</sup>예수 | 예즈 들  
 을 들너 보시며 피득을 썩지 저 곧 으샤 디 살 단아 내 게셔 물너가  
 라 네가 <sup>三十四</sup>런 주의 뜻 손뎡 밧져 아니코 사 롬의 일 만싱 각 호는 도  
 다 호시 고 못사 롬 파 예즈 들을 불너 곧 으샤 디 만일 아 모사 롬이  
 라 도 나 를 쓰라 오 라면 정육을 좃지 말고 심즈 가 틀 지고 나 틀 쓰  
 르게 호라 <sup>三五</sup>대 개 누구 던 지 제 목 숨을 앓기 고져 호면 그 거 슬 일 홀  
 거시오 또 누구 던 지 날과 복음을 위 호야 제 목 숨을 일 호면 그 거  
 슬 초 지 리 라 <sup>三六</sup>사 롬이 만일 온 텨 하 리를 엿고 도 제 목 숨을 일 호면

마가 복음  
 데 팔 장

이십

무어시유익함이되리오사<sup>三七</sup>롬이무엇을주고목숨을뱃구겠느냐  
대개<sup>三八</sup>이음란하고죄만흔세상에잇서나와내의드를뺏그려  
흐는쟈는인즈도아바나의영광으로거룩<sup>三九</sup>한<sup>四〇</sup>런스와홍쳐는려  
올때에그사롬을뺏그렵다<sup>四一</sup>호리라

### 데구장

예수ㅣ또글은사<sup>四二</sup>디내실노너회개날은노너여귀

섯노니중에더러는  
런주의나라이권세로림호는거슬보  
기서지죽음이업스리라호시더라  
○또엇시후에예수ㅣ피득  
파아각<sup>四三</sup>파요한을드리시고  
종용이놓흔산에올나가샤그사롬  
들압희셔형용을변호시<sup>四四</sup>매그  
옷시찬란하고심히회니  
세상외서  
쌀내흔거스로논이러케  
할수가업슬너라  
또이리아와  
마셔가나타나  
예수로더브러  
말씀호는  
피득이에수셔고호여  
글은디  
랍바여우리가여귀  
잇는거시  
도스오너  
우리로호여  
골

장막 셋을 지어 향나는 쥬를 위하고 향나는 마세를 위하고 또 향  
 나논 이리가 틀 위하게 할 읍 쇼셔 흥은 제가 막 솜 말을 흘 년 지 아  
 지 못 함이 오더 희 들이 심히 막 셔 위 함 일 너 라 못 <sup>7</sup>춤 구름이 와 덮  
 희 더 니 쏘 구름 속으로 소리 잇서 날으 디 이 는 내 의 사랑 향 는 아  
 들 이 니 너 희 는 드 를 지 어 다 향 거 늘 <sup>8</sup>문 득 들 너 보 니 아 모 사 릉 도  
 보 지 못 할 엿 고 예 수 만 더 희 와 함 의 계 시 더 라 <sup>9</sup>○ 산 에 서 는 려 올  
 때 예 예 수 | 경 계 향 야 클으 샤 디 인 조 | 죽 음 으 로 다 시 니 러 나  
 는 때 서 지 너 희 본 거 슬 아 모 사 릉 의 게 라 도 날으 지 말 나 향 시 니  
 예 즈 들 이 이 말 솜 을 복 응 향 며 서로 의 론 호 디 다 시 니 러 난 다 함  
 은 무 솜 뜻 시 보 향 고 예 수 쉼 못 조 와 글으 디 셔 사 관 들 이 말 향 기  
 틀 이 리 아 가 맞 당 히 몬 져 온 다 향 더 이 다 향 거 늘 <sup>11</sup>글으 샤 디 이 리  
 아 | 과 연 몬 져 와 셔 모 든 것 슬 희 복 할 거 시 녀 늘 또 엿 지 성 경 에 인

마가복음

예구장

이십일

조 |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고 업수이니 너 임이 되리라 하였는 나  
 오<sup>十一</sup>직 내 너 희게 낚으노니 이 리아 | 임의 왔스 되 여러 사 례 이 임  
 의 로 되 접 호 기 를 성 경 에 괴 롱 호 말 과 처 호 었 는 나 라 ○ 이 에  
 그 들 이 예 조 들 의 게 나 아 와 보 니 허 다 호 사 례 이 들 녀 고 쓰 셔 사  
 관 들 이 너 브 러 변 론 호 는 지 라 <sup>十五</sup> 못 사 례 들 이 곳 예 수 를 보 고 심 히 놀  
 내 며 다 라 와 문 안 호 기 놀 예 수 | 무 러 큰 으 사 되 너 희 가 무 엇 슬  
 변 론 호 는 나 <sup>十七</sup> 못 사 례 중 에 호 나 이 되 답 호 되 주 여 내 가 내 아 들 을  
 드 리 고 왔 스 오 니 제 가 병 어 리 되 는 귀 신 을 들 녀 셔 어 <sup>十八</sup> 되 던 지 귀  
 전 이 더 를 잡 으 면 곳 썩 구 러 저 춤 을 흘 니 며 나 를 갈 아 척 골 이 된  
 지 라 내 가 선 성 의 데 조 들 드 러 썩 쳐 탈 나 호 었 더 니 그 들 이 능 히  
 호 지 못 호 더 이 다 호 기 놀 예 수 | 되 답 호 여 글 으 사 되 밋 지 안 는  
 세 상 이 여 내 가 열 마 나 너 희 와 처 처 잇 스 며 내 가 열 마 나 너 희 를

춤으리 오고 오히를 내게로 드려 오라 하시니 여러 히든 리고와  
 서 예수 를 뵈 오매 귀신이 곳 그 오히를 크게 오그려 뜨리니 싸에  
 업드러져 구을며 춤을 흘려 거늘 예수 | 그 아비 드려 무르샤디  
 병든 제가 얼마 마나 되었느냐 하시니 대답 하디 어릴 때 보터 귀신  
 이 더를 죽이라고 불과 물에 자조 더졌스오니 후선 성이 아모 일  
 이라도 할 실수 잇거든 우리를 만망히 녀이샤 도와주소서 할 거  
 늘 예수 | 날 | 샤디 만 일 네가 맞으면 드든 거슬 맞는 자와 게는  
 할여 줄 수가 잇는 니라 하시니 곳 그 오히의 아비가 소리를 질너  
 킬으디 내 맞스오니 내의 맞지 아님을 도와주소서 예수 | 못사  
 름이 달너와서 드하는 것슬 보실새에 그샤 귀를 썩지 지시며 날  
 너 킬으샤 되너는 병 어 리요 귀의 온 귀신이라 내가 네게 분복 할  
 노니 그 오히게 서나 오고 다시 드러 가지 마라 하시니 샤귀가 부

마가복음 17:15-18

이십이



르지 지며으히를 심히 오그러 쓰리고 나가니 그으히가 죽은 이  
 곳치 되었는지 라 모든 사슴이 다 말하기를 그가 밭서 죽었다 하  
 는지 라 오직 예수 | 그 손을 잡고 니르키시 니드디 여 니러 나 더  
 라 집 에 드러 가 시 매 데 즈 들 이 좋 용 이 못 즈 와 끌으 디 우리 는 잇  
 지 할 야 그 귀 신 을 쫓 차 내 지 못 하는 잇 가 예수 | 더 드 러 끌으 사  
 디 이 런 것 스 과 도 외 에 는 아 도 것 스 로 도 나 가 게 홉 수 가 업 는 니  
 라 ○ 이 에 그 곳 슬 떠 나 가 리 리 로 저 날 식 예수 | 아 도 사 롱 도 알  
 니 고 저 아 니 할 사 데 즈 들 을 그 르 치 시 고 또 끌으 사 디 인 즈 | 사  
 롱 의 손 에 내 여 주 어 죽 이 고 죽 인 후 삼 일 만 에 다 시 살 니 라 할 시  
 니 오 직 데 즈 들 이 이 말 습 을 썩 닳 지 못 하고 또 못 기 를 무 서 워 하  
 더 라 ○ 예수 | 가 빌 능 에 니 르 러 집 에 게 실 시 데 즈 들 드 러 무 러  
 끌으 사 디 너 희 가 로 중 에 서 서 로 의 룬 흥 이 무 엇 시 나 데 즈 들 이

짐 짐 함은 더 희가로 중에 서 서로 헐난 기를 누가 돕흐요 함이  
 라 예수 | 안지 사 열 두 매 즈를 불너 곧 이 사 당 데 일이 되고 저  
 는 이 는 못 사람의 뜻이 될 거시오 못 사람의 하인이 되느니라 하시  
 고 어 린 으 히 하나를 취하시여 러 사람이 가 온 디에 세웠다 가 팔에  
 안 으 시 며 더 희 드 러 닐 너 곧 이 사 디 누구 던 지 내 일 함 으 로 써 이  
 못 흔 어 린 으 히 중에 하나 이 라 도 영 접 함 으 면 곧 나 를 영 접 함 이 요  
 또 누구 던 지 나 를 영 접 함 으 면 나 를 영 접 함 이 아 니 요 오 직 나 보 내  
 신 이를 영 접 함 이 나 라 ○ 요 한 이 예 수 썩 었 즈 오 디 주 여 우리 들  
 이 보 으 니 흔 사 람 이 주 의 일 함 으 로 사 귀 를 내 여 썩 거 늘 제 가 우  
 리 를 쓰 르 지 아 니 흔 연 교 로 우리 가 금 으 었 느 이 다 예 수 | 곧 이  
 사 터 금 처 마 라 대 개 내 일 함 을 의 탁 하 야 능 흔 일 을 행 하 고 경 흘  
 이 내 개 악 흔 말 을 하지 못 하 느 니 라 으 못 우리 를 치 지 안 는 자 는  
 마 가 복 음

데 구 장

이 십 삼

곳으리를향하는자 | 나라대개누구던지흔잔물노너희를막  
시우면너희가괴독에속함을인함이니내실노너희게닐이노  
니그사롬이반드시상밧음을일치안니리라또누구던지나를  
밧는적은이름하니이라도범죄케하면그사롬의게는출하리  
큰돌미를제목에달고바다에더짐이나오리라만일네손이내  
를범죄케하거든곳산허브릴지니출하리병신으로던당에드  
러가는거시두손다두고디옥의씨지지안는불에드러가는것  
보담도흐니라만일네발이내를범죄케하거든곳산허브릴지  
니출하리절며런땅에드러가는거시두발다두고디옥에드러  
가는것보담도흐니라만일네눈이내를범죄케하거든곳산허  
브릴지니출하리흔눈으로던주의나라에드러가는거시두  
눈다두고디옥에떨러지는것보담도흐니라더괴는버레도죽

지안코 불도 새지 안는 곳 이 나라 대개 사람 마다 반드시 불노  
써 저리니 소곰이도 혼거시로되 만일 소곰이 그 맛슬 일흐면 엇  
지 써 새게 할리오니 희속에 도 소곰을 두고 서로 화목 할지 나라

**예 십 장**

예수 | 그곳을 써나 요단 강 건너 유대 디경에 드러

오시니 웃사람이 다시 모혀 들거늘 예수 | 여상이 다시 이르차

시더니 법리서 사람이 예수를 시험코져 할야나 아와 무려 곧

되 사람이 안히를 내여 브림이 올흐니 잇가 예수 | 되 답할여 곧

은 사되 마셔가 었더케 너희게 명할였느나 곧 은 되 마셔가 써나

는 글을 써서 브리기를 허락할였느이다 할거늘 예수 | 더 희드려

곧 은 사되 너희 마음 이녕 악함을 안 할야 마셔가 이런 명을 쟈스

나 다 만래 초로 브러 조화의 주 | 사나희와 제 집을 든드릿스니

사롬이 이연고를 말미암아 제아바지와 어마니를 써나 매제안

마가복음

예 십 장

이 십 소

히를합하야들이흐곰이되느니이러므로못춤내들이되지안  
코흐몸이니그런즉 런쥬셔서작하신이는사름이가히는호  
지못하느니라예수ㅣ집에게사매데즈들아다시이일을뭇즈  
온티디답하샤디누구던지제안히를브라고다른디쟝가드느  
이논본쳐의게간음흐죄를지음아오안히가제지아비를브리  
코다른디로시집가는것도또흐간음을헝흔이니라○또어린  
오히들을드리고예수셔와서문지서기를청하느이있는지라  
며즈들이드리고온자를척망하거늘예수ㅣ보시고흐하샤골  
오히터어린오히들이내게오는거술허락하고금치마라대개  
런쥬나라에잇는쟝는정히이와긋하나라내실노너희게닐  
오히노니누구던지 런쥬나라밧들기를어린오히와긋치안는  
이논드러가지못하리라하시고이에어린오히를팔개안고부

복을주시며손으로그머리우헤티이시더라○길에나오실시호  
 사룸이예수씨다라와썩러업티여뭇조와클으디착호선성님  
 내가엇더케호여야영성을엇겟느니잇가예수<sup>十九</sup>닐으샤디네가  
 엇지호야나를착호다닐코느냐<sup>二十</sup>턴쥬외에는호나도착호이  
 가업느니라네가계명을아느지라살인호지말며음란호지말  
 며도적질말며거짓증거말며속이지말며네부끄를공경호라  
 호였느니라디답호야엇조오디선성님이거스네가어려셔브  
 터다직희였느이다예수<sup>二十一</sup>그사룸을다시보시고스랑호샤또  
 클으샤디네오히려흔가지부족함이잇스니가셔잇는거슬포  
 라가난호이를주면보화를하늘에두는거시니라또와셔나를  
 좇치라호시니그사룸이말숨을인호야얼골빛차변호고또근  
 심호며가니이는그지산이만흙일너라○예수<sup>二十二</sup>돌나보시며

마가복음

예십장

이십오

저귀 데 저드려닐너클으샤 디 부흔사 름은    텃쥬의 나라에 드  
 러가 기어 렴갯도 다 데 저들이 그 말 슴을 놀내 거늘 예수 | 다시 말  
 슴하 샤 디 쇼 저들 아 저 물을 밋는 이는    텃쥬의 나라에 드러가  
 기가 어 려울진 더 약 디가 바늘 구멍을 꿰는 거 서 부흔사 름이  
 텃쥬의 나라에 드러가 는 것 보담 쉬 오리 라 하시 니 데 저들이 더  
 욱이 상히 녀 여 예수 썬 엿 저 오 디 그 러 흔 주 워 가 능 하 구 원 함 을  
 엿 으 리 잇 가 예 수 | 그 들 을 눈 주 어 보 시 고 글 으 샤 디 사 름 으 로  
 는 능 히 못 하 거 니 와 오 직    텃쥬 은 그 러 치 아 니 시 니 대 개 모 든  
 거 슴 못 하 실 바 | 업 는 니 라 피 득 이 엿 저 와 클 으 디 보 쇼 서 우 리  
 가 모 든 것 슴 다 버 리 고 선 성 님 을 조 찾 는 이 다 예 수 | 클 으 샤 디  
 배 실 노 너 희 게 닐 으 노 니 나 와 복 음 을 위 하 야 집 이 나 형 데 나 저  
 미 나 부 모 나 저 식 이 나 뎌 도 들 을 썬 나 는 이 는 <sup>三十一</sup> 저 금 이 세 상 에 있

서 집들과 형제와 조덕와 모친들과 언토와 밋핍박을 뵈러 나 밋  
 지아닐이 업슬 거시오 또 오는 세상에 영성을 얻으리라 대개 몬  
 저 호는 자 | 장 초 뒤가 되고 뒤에 호는 자 | 장 초 몬 저 될 이 가 만  
 흐리라 ○야로 살림에 올라 갈 때에 로 중에서 예수 | 그 들 압서  
 칭 호 서 더 니 데 즈 들 은 이 상 히 너 이 고 또 호 좃 는 이 는 두 러 워 호  
 는 지 라 다 시 열 두 데 즈 를 드 리 시 고 장 초 즈 기 맞 나 실 일 들 을 널  
 너 쿨 으 샤 디 우 리 가 야 로 살 림 에 올 나 가 셔 인 즈 | 제 스 제 장 과  
 서 사 관 들 의 께 잡 혀 가 리 니 더 희 가 죽 이 기 로 덩 흘 거 시 오 또 이  
 방 사 롬 의 께 잡 혀 보 내 리 니 더 희 가 룡 육 호 며 춤 밧 흐 며 칩 직 질  
 호 여 죽 일 거 시 오 또 삼 일 만 에 다 시 살 이 라 ○ 셔 비 태 의 아 들 아  
 각 과 요 한 이 갖 가 이 나 아 와 엿 즈 오 디 쥬 여 우 리 가 무 엿 슬 구 호  
 던 저 쥬 셔 서 우 리 를 위 호 야 칭 호 시 기 를 원 호 옴 는 이 다 예 수 |

마가복음 데십장

이십륙



닐 너 낄으샤 디 날 드려 너 희를 위 하야 무엇슬 힘 하고 저 하는 나  
 엇 조와 낄으 디 쥬셔 셔 영광으로 계실 때 게 우리를 하는 쥬의  
 을 혼편에 안치시고 하는 원편에 안케 하여 주옵쇼셔 예수  
 낄으샤 디 너 희 구하는 거슬 너 히가 아 지 못하도 다 내의 마실 잔  
 을 너 히 능히 마시며 내의 밧을 세례를 너 희 능히 밧겠는 나 디 답  
 하 디 우리 가 능히 하겠는 아 다 예수 | 닐으샤 디 내의 마실 잔은  
 너 희가 마실 거시 오 내의 밧을 세례는 너 희가 장춧 밧으려 니와  
 오직 내을 혼편과 원편에 안기는 내가 줄 거시 아 니 요 누구를 위  
 하야 예 비 하섯 신 즉 주시 리 계 주시 리 라 열 예 조 | 듯 고 아 각 과  
 요 한 을 혼 하 거 늘 예 수 | 부르샤 더 희 드려 낄으샤 디 이 방 님 금  
 이 드 스 림 을 쥬 장 하 때 대 인 이 그 권 세 를 잡 는 거 스 너 희 가 아 는  
 바 | 로 되 오 직 너 희 중 에 는 이 와 곳 지 아 니 하 니 다 만 너 희 중 에

크게 되고 저 호는 이 노반드 시너 회하인이 될 거시오너 회중에  
 웃듬이 되고 저 호는 이 노반드 시못사룸의 종이 될 거손대개인  
 즈 | 와셔진실노사룸을 버리라 호미 아니라 오적섬괴라 호미 오  
 쏘여러사룸을 위호야 목숨을 주어 속죄 호미 나라 ○야리가에  
 니르렀다가 예수 | 데즈와 또허다 호사룸으로 호미야 리가에  
 서나가 실식 더미의 아들 쇼경파 더미가 길가에 안저 구걸 호다  
 가나 살록사룸 예수 | 라 호를 듯고 곳 불너 고티대위의 조손  
 예수여나를 불쌍이 너 이 쇼셔 호 거늘 여러사룸이 썩지저 좀  
 호타 호되 오직 그가 더욱 크게 불너 고티대위의 조손이 여나  
 를 불쌍히 너 이 쇼셔 예수 | 머 물너 서치고 고티대위의 조손이  
 라 호시너 사룸들이 그 쇼경을 부르며 불너 고티대위의 조손이  
 러나라 예수씩셔 너를 부르신다 호니 쇼경이 옷을 버리고 뛰여  
 마가복음 ㉓ 데십장

이십칠

예수께서 나오거늘 예수 | 날너골으샤 디네 날 두려울 것을  
고쳐 주는 나 쇼경이 디 답하 디 주여 내 보기 를 잊고 저하는 니다  
예수 | 날너골으샤 디 갈 지어 다 네 믿음 이 너 를 잊게 하니 라 하  
시니 그 사 롱 이 곳 봄 을 잊고 예수 를 길 에 서 좃 너 라

### 예 십 일 장

아 로 살 링 에 갔 가 이 가 셔 예수 | 빅 법 기 와 빅

대 너 에 너 르 니 감 남 산 이 갔 가 온 지 라 예수 | 두 데 즈 를 보 내 시  
며 날 너 골 으 샤 디 압 희 퇴 는 마 을 에 가 셔 드 러 갈 때 곳 라 귀 삭 기  
린 거 슬 맛 나 리 니 아 직 아 모 도 든 사 롱 이 업 스 리 라 푸 러 쓰 을 고  
오 너 라 만 일 었 던 사 롱 이 무 엇 하 라는 냐 못 거 든 골 으 디 주 셔 셔  
쓰 신 다 흥 면 즉 시 이 리 로 보 내 리 라 때 즈 들 이 가 니 라 귀 삭 기 하  
나 히 문 밖 크 거 리 에 미 혀 는 지 라 곳 푸 니 것 희 션 던 사 롱 두 어 시  
더 드 러 날 너 골 으 디 라 귀 삭 기 는 푸 러 무 엇 슬 하 라는 요 하 거 늘 데

자들이 예수의 명칭으로 디로써 디답하니 이에 허락하는 자라라 귀  
 를 받으시고 예수께서 나아올시던 희옷을 그 우혜 두었는지라 예수  
 1 르시니 여러 사람이 옷을 길에 펴고 또 다룬이느 바희셔 버힌  
 나무가지를 펴더라 압셔며 뒤셔 오는 무리들이 불너 곧 이르  
 일만복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 이가 복이잇슬지어다 오는  
 나라 우리 조상 대위의 나라에 복이잇슬지어다 지극히 높흔 디  
 에 계시느 이가 일만복이로다 ○ 예수 1 야로 살림에 니르러 성  
 던에 드러가샤 모든 물건을 돌너 보실시때 가져몬지라 열두에  
 즈와 흙썬빅대니에 나가사 다 ○ 잇튼날 빅대니에 서셔 나실  
 석 예수 1 시장할 신지라 멀니 무화과 나무의 밑사귀 잇슴을 보  
 시고 곳 나아가가샤 후 그 우혜 잇을 거시 잇슬가 하셧너니 임의  
 나아가시매 남사귀만 맛나니 열두를 때 가니 르지아니 흙이

라예수<sup>十四</sup> | 나 무드러닐으샤 디이제 후로는 네 열미를 먹을사  
롬이 업소리라 하시니 데즈들이 뜻더라<sup>十五</sup> ○ 그들이 야로살림에  
니르러 예수 | 성면에 드러가샤 면안에서 풀고 사는 자들을 내  
여 쫓기를 시작하시고 돈 밧고는 자의 상과 비뉘기 풍는 자의 교  
의를 들너 업흐시고 아모사<sup>十六</sup> 름이던 지과 명을 가지고 성면으로  
지나감을 허락지 아니시고<sup>十七</sup> 이에 너희를 무르쳐 끌으샤 디 성경  
에 기록 하였스되 내 집은 반드시 만국 백성의 기도 하는 집이라  
닐코지 아니 하였느냐 오직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삼는도다<sup>十八</sup> 제  
스제장과 서사관들이 이거슬 뜻고 엿너 케멸홀고 썩어나 득려  
워 흙은 모든 무리가 그 무르침을 귀히 녀임일너라<sup>十九</sup> ○ 저물때  
마다 예수 | 성에서 나가사더라<sup>二十</sup> ○ 그들이 아침에 옥화과 나무  
에 지날시 베히로 브러마른 거슬 보고<sup>二十一</sup> 피득이 생각하고 엿조화

곧 오티션 성님 천 건대 화를 주신 무화파 나무를 보쇼셔 임의 말  
 낫는 이 다 되 답하 여 곧으샤 되네 맞당이 卍三 런 주을 밋을 지니라  
 내 실노 너 희게 날으노니 누구던 지 이 산드려 말하 여 날으디 음  
 겨가 서 바다에 더지라 하고 중심에 의심치 안코 말하 거시 반드  
 시 일우리라 밋으면 곳엇으리라 卍四 그러므로 내너 희게 말하 노니  
 기도 할 때에 무어시던 지 믿음에 의심치 안코 임의 엇을 줄 노 밋  
 으면 반드시 엇으리라 卍五 네 만일 사름으로 더 브러 혐의 가 잇거든  
 서서 기도 할 때에 맞당이 푸러 주어야 하늘에 계신 너 의 아바니  
 도 또 하늘에 허물을 푸러 주시느니라 卍六 만일 네가 푸러 주지 아니면  
 곳 하늘에 계신 너 의 아바니 도 또 하늘에 허물을 푸러 주지 아니시  
 느니라 卍七 ○ 더 들이 다 시야로 살림에 니르러 예수 | 성련에 거니  
 시 더니 제스 제 장과 서사 관과 장로 | 나아와 날너 곧으디 네가

마가복음  
 卍  
 데십일장

이십구

무슨 권세로 이 일들을 행하며 누가 이 권으로 너를 주어 이 일들을  
을 행하게 하더냐 예수 | 더드려 이르시되 내 소행은 말도 너희  
게 무를 지니 되 답하면 내 무슨 권세로 이 일들을 행함을 너희게  
이리 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왔느냐 사름으로 왔느냐 되 답하  
라 그 사름들이 서로 의론하여 이르되 만일 날이 되 하늘로 왔다  
하면 더 | 반드시 쥘이 되 었지 저를 밋지 안느냐 흘 거시 요한 일  
닐이 되 사름으로 왔다 하면 백성이 무서우니 백성이 다 요한을  
진실 노 선지라 함을 인함 일 너라 드되 여 예수 되 답하여 이르  
되 우리 느아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 | 날 너 이르시되 내 무슨 권  
세로 이 일들을 행함을 또 이르시되 너희게 날이 저아 나리라

### 제십이장

예수 | 비유로 무리들의게 말씀하시기를

작한 사 되 혼 사름이 동산에 포도를 심으고 산을 노 두루 고 그 속

에 술짜는 들을 두고 막을 짓고 농부의 계세로 주고 이에 다른 식  
 골에 갖다가 싹판니는 새가 나르매 종을 농부의 계보내어 포도  
 동산 싹과를 밧고 저호니 그들이 종을 잡아쓰라고 그저 보내거  
 논다<sup>四</sup> 시다른 종을 보내니 농부 | 그머리를 돌노상하고 육을 주  
 거<sup>五</sup> 논또다른 종을 보내니 농부 | 그 종을 죽이고 또 종들을 만히  
 보내니 후쓰리기도 하고 후죽이기도 하는지라<sup>六</sup> 사랑호는 외아를  
 이잇스니 믿음에 헤아리되 더희가 내아들은 공경호리라 하고  
 밧춤내보내엇더니 농부들이 서로 말호타이는 산업을 니을자  
 | 니와서 흙써 죽여 그 산업이 우리게로도 오게호자<sup>八</sup> 하고드  
 디어 잡아 죽여 동산 밧고 버리니 동산 주인이 엿더케 호리 오반  
 드시니 르러 농부를 멸하고 동산을 다른 사람의 계맛기리라<sup>十</sup>  
 성경에닐은 바장인의 브린돌이 집못동이 예요긴흔돌이되는



니 이 거 손 주 세 셔 일 우 신 거 시 오 우리 눈에 괴 이 흠 아 라 흠 을 너  
 희 가 도 모 지 낫 지 아 니 흥 었 는 냐 그 들 이 예 수 를 잡 고 저 흥 되 그  
 저 가 기 는 무 리 를 두 려 워 흠 이 니 대 개 예 수 비 유 로 더 희 를 그  
 치 심 을 알 밀 너 라 ○ 법 리 서 사 름 과 희 를 의 당 두 어 사 름 을 보 내  
 여 그 흥 시 는 말 슘 에 척 잡 으 라 흠 식 임 의 니 르 러 엿 주 어 낄 으 터  
 션 성 님 은 출 되 시 고 아 모 사 름 이 라 도 편 벽 되 이 보 지 안 코 모 양  
 으 로 사 름 을 취 치 안 코 오 직 정 성 으 로      련 주 의 도 를 그 르 치 는  
 줄 을 우 리 가 아 노 니 세 돈 을 희 살 의 게 밧 침 이 을 흐 닷 가 우 리 가  
 밧 치 리 잇 가 말 니 잇 가 예 수 | 그 거 좃 착 흠 을 알 으 시 고 더 드 려  
 널 으 샤 터 너 희 가 엿 지 나 를 시 험 흥 는 냐 금 훈 훈 을 가 저 다 가 내  
 게 보 이 라 흥 시 니 가 저 왓 거 늘 글 으 샤 터 이 화 상 파 일 흠 이 뉘 냐  
 흥 시 니 터 답 흥 여 낄 으 터 희 살 이 니 다 이 에 예 수 | 더 희 게 낄 으

사의히살의물건은히살의제돌너보내고또한 런주의물건  
 은 런주제돌너보낼지니라하시니그사롬들이심희괴괴히  
 녀이더라 ○ 살<sup>十九</sup>도히사롬이다시샤는거시업다말하는자 에  
 수제와무리클으디<sup>十九</sup>션성님이여마세 | 글노우리게보여스되  
 혼사롬이형어죽고안히는잇스되즈식이업스면그동성이그  
 안히를취하여그형의디를니우라하시니<sup>二十</sup>닐곱형데가잇는  
 디맛시안히를취하여즈식이업시죽고그<sup>二十一</sup>들재가그안히를취  
 하여또즈식이업시죽고그셋재가또<sup>二十二</sup>흔그러케하되닐곱이다  
 즈식이업섯고그후에녀인이또<sup>二十三</sup>흔죽엇스니다시살썰에이녀  
 인이<sup>二十四</sup>뉘안히가되리잇가대개그닐곱사롬이안히를삼음으로  
 쇼이다예수 | 클으샤디너희가성경과 런주의권능을아지  
 못함으로이러케그릇함이아니냐<sup>二十五</sup>대개더희가죽엇다가다시  
 마가복음 데십이장

삼십일

살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식집도 아니 가느니 다만 하늘에 있  
 는 천사와도 하니라 오직 죽은 이가 부성함을 의논할진디 너희  
 가 마셔 의척형극편에 二六 천주께서 마셔 드려 말씀하시디 나는  
 아뵈람한의 二七 천주이오 이슬의 二七 천주이오 아각의 二七 천주이  
 라 하신거슬려지 아니 하였느냐 이 二七 천주는 죽은 자의 二七 천주  
 이 아니 오산자의 二八 천주이니 너희 그릇함이 크니라 ○ 또 서사  
 관할 사람이 와서 이번론함을 듯다가 예수의 디 답하시노 말씀  
 이 올흔 줄을 알고 무려 클으 디 무어 시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  
 는 잇가 하거늘 예수 二九 디 답하시디 드르라이 식렬 사람들아 주  
 는 곳우리 三〇 천주이시니 주가 혼분이라네 三〇 입을 다 하며 목숨  
 을 다 하며 성품을 다 하며 힘을 다 하여 주 너희 三〇 천주를 사랑하  
 고 들재는 이 거시니 니웃 사랑하기를 제 몸과도 치하라 하였스

니이 두가지 보답 더 큰 계명이 업는 나라 서사관이 디 답하 디션  
 성님 말씀에 三三 텨 주은 하나 이시오 그외에는 다른이 가업다 하  
 심이 올소이다 三三 또 무음을 다 하 며 뜻슬 다 하 며 힘을 다 하야 텨  
 주을 사랑하고 또 니웃 사랑하기를 제 몸과 못치 하 면 회심을 굽  
 고 제스 하는 것보답 내게 슬는 니다 하 거늘 三四 예수께서 그 터 답이  
 지혜잇습을 보시고 三五 날으샤 디 텨 주의 나라에 서네가 머지안  
 타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못논이 가업더라 ○ 예수 | 성던에서 사  
 림을 크게 처킬으샤 디 었지 하야 서사관들이 괴독을 대위의 조  
 손이라 하는 三六 요대위가 성신을 감동하야 스스로 말하되 주께서  
 내 주 되 날으샤 디 내가 배원 슈를 네 발 등 상 문 들기 서지 내을 혼  
 편에 안지라 하 셧다 하니 三七 대위가 임의 괴독을 주라 날 크게 려스 죽  
 괴독이 었지 대위의 조 손이 되느냐 하 신 디 백성들이 뜻기름  
 마가복음 三三 데십이장 三三

삼십이

즐기더라 ○ 예수 | 37 처실 때에 또 콜으샤 디조심하야셔 사  
 관을 막으라 너희가 긴 옷을 입고 놀기와 저자우에서 문안하는  
 것슬 깃버하며 또 회당에 놓흔 위와 잔치에 상좌를 깃버하나 그  
 러나 너희가 과부 집지물을 숨키고 거짓길 깨기도 하니 형벌 받  
 음이 더욱 중하리라 ○ 예수 | 곳 집을 터하야 안져녀려사 롱이  
 금넋는 거슬 보실셔 여러 북자들 이금을 만히넋코 가느 할과부  
 도니 르러 반리들을 너흐니 곳 일리라 예수 | 데즈를 불너 콜으  
 샤 디내진실 노너희 깨닐으노니 이 가느 할과부가 곳 집의너 혼  
 거시 여러사 롱보담 더욱 만하니 대개 다른 이들은 능는 것으로  
 너헛거니와 오직 이과부는 저도 북쪽 할 거슬 다 너헛스니 곳 런  
 명 할가 산이니라

**예 십삼 장**

예수 | 성던에서 나가실시 할 때 즈 콜으 디션

성님이여 청컨대 이들과 같이 집이 있더케 응장 혼자 보옵소서<sup>二</sup>에  
 수 | 디 답하시라 글으샤 디 너희들이 이 큰 집들을 보느냐 그러나  
 여귀들하나도 텨 노히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문어지리라 하시  
 거늘 ○ 예수 | 감람산에서 성던디 하야 안지시니 피득과 야 각  
 과 요한과 합득 열이 종용이 무려 클으 디 청컨대 우리게 빌으쇼  
 셔어는 때에 이 일들이 잇스오며 이 모든일이 림할 때에 무슴 정  
 조가 잇스오 리 잇가 예수 | 디 답하시라 글으샤 디 너희가 조심하  
 여 사람의 유혹에 들지 마라 대개 여러 사람이 내일 흠을 무릅쓰  
 고 오느니 잇셔 클으 디 내가 귀독이라 하시니 그의게 유혹할 자  
 쏘 할만하시라 쏘 할너희가 싸흠과 싸흠의 소문을 들고 두려  
 워 하지 마라 이일이 반드시 잇슬거시로되 오직 샅과 한은니라  
 지아니 흠이 아니라 백성이 백성을 치고 나라히 나라를 치고 각 처

에 디 동훈이 잇고 또 훈흥년이 잇스리니 이르고 난을 시작함이  
 라 ○ 너희는 조심하라 사름이 너희를 잡아 공회에 니를 거시오  
 너희를 회당에서 칠 거시오 또 내의 연고를 인하여 너희가 왕후  
 압헤서서 증거가 되고 복음을 받드시 몬져 모든 박성의게 전훈  
 거시니 사름이 너희를 쓰을고 잡을 때에 너게 말함을 넘려치  
 말고 또 훈미리 계교치 마라 오직 그 때에 너희게 주는 말노 말하  
 지니 너희가 말하느 거시 아니라 성신이 말하심이니라 <sup>十一</sup> 형데가  
 형데를 잡아 죽세에 닐를 거시오 아비가 저석의게 또 훈그려하  
 고 즈녀가 부모를 쳐서 죽게 할 거시오 <sup>十二</sup> 너희가 내일 훈을 위하  
 못사름의게 위위 훈을 밧을 거시오 오직 <sup>十三</sup> 닳서 제촉는 자는 반드  
 시 구원 훈을 엇으리라 ○ <sup>十四</sup> 선지단이 리 말에 빈터 올일 우게 하느  
 위 온 블건이 맛당이 서지 아니 할 때에 서리라 훈을 너희가 보거

던이글을읽는자 | 맛당이싱각홀지어다그때에유래에잇는  
 자가맛당이산으로도망홀지니집우에잇는자는나려와집에  
 드러가지말고또홀집에잇는물건을취하여내지말며<sup>十六</sup>밖헤잇  
 논자는도라가고옷슬가지지마라<sup>十七</sup>그때에회빈자와어린  
 희젓먹이는녀인이화가잇스리라<sup>十八</sup>녀희는기도하여겨을에도  
 망홀는거슬면하라<sup>九</sup>대개당일에환난이잇스리니하는님썩셔서만  
 물을창조하여써옴으로이곳홀이잇지아니하고후에도또홀  
 업스리라<sup>十</sup>만일쥬며셔그날을조곰도감홀지아니호섯더면곳  
 홀사람도구원함을엇을수업슬거시언마는쥬며셔그턱홀신  
 빙성을위하여야이날을감홀것는니라<sup>十一</sup>그때에만일사람이잇셔  
 너드려콜으되보라괴독이여괴잇다더괴잇다하여도밋지마  
 라<sup>十二</sup>대개그것괴독들과그것션지들이니러나서이상홀자회와



기회할일을베푸러탁할신복성이라도유혹하게하면곳유혹  
할리니너희는조심하라이일을내가다녀드려몬져말하였느  
니라○그때에환난이잇는후에히가어둡고달이빛출내지안  
코하늘에서별이떠러지고하늘권세가흔들이며때에인즈가  
큰권세와큰영광으로구름을타고음을여러사룸이보리니그  
때에반드시런스를보내여그탁할신복성을스방에모혈시켜  
극할디로브러하늘극할디까지너르리라너희는무화과나무  
의비유함을비호라그가지가연하고남식씩나면곳너름이갓  
가온줄을알거시니이곳치너희가이일을보면임의인즈가문  
압회갓가이니른줄을알지나라내실노너희게닐으노니아디  
가가지아니하고이일이다일우리나하늘과쌍은업서질지언  
당내말은업서지지아니할리니다만그날과그때는사룸이아

눈이 가 업고 하늘에 있는 현스와 인즈도 소호아지 못호고 아하  
 지만 아 르시느니라 너희는 조심호고 썬여기도 호여라 대개 너  
 희들이 그 썬가 언제니 룡을 아지 못호이니라 비유호건디 호사  
 룡이 집을 썬나 다른 나라에 든 일식 권세를 종의게 주어 각각 그  
 일을 맞기고 또 문직 회는 자의게 명호되 썬여라 호니그런고로  
 너희가 썬여라 집 주인이 후져 물게나 후 밤중이나 후 독을 썬나  
 후 복을 때니를 지아지 못호니그가 호연이 와서너희 자는 거슬  
 불가 두려워 호노라 내가 너희게 말호는 거시 곳 모든 사 물의게  
 말호이니 썬여라

**대십사장**

이틀을 지내니 유월절과 누룩업는 썬먹는 절

이라 제스제장과 서사관들이 케게로 었더 케예수를 잡아 죽이  
 고 저호나 큰오디절과 예논을 치안타 호은 후 민요가 날가 두려  
 마가복음

대십사장

삼십오

위 흠 일 너 라 ○ 예수 | 빅 대 니 에 사 는 문 동 이 서 문 의 집 에 계 서  
잔 처 에 안 지 실 때 에 흐 너 인 이 옥 합 에 미 우 갑 진 나 탈 향 기 록 을  
담 어 가 지 고 와 서 그 옥 합 을 썬 치 고 기 록 을 예 수 의 머 리 에 부 으  
니 득 어 사 름 이 서 로 흐 흐 여 글 으 터 었 지 이 기 록 을 허 비 하 는 나  
이 기 록 을 풀 었 더 면 이 삼 빅 량 에 지 내 리 니 가 난 흐 자 를 구 제 할  
거 시 라 흐 고 그 녀 인 을 원 망 흐 거 늘 예 수 | 켜 으 사 더 그 만 득 어  
라 너 희 가 었 지 이 녀 인 을 힐 난 흐 는 나 제 가 내 게 착 흐 일 을 힘 흐  
엿 는 니 라 대 개 가 난 흐 사 름 은 흥 상 너 화 와 흠 썬 잇 스 리 니 아 모  
썬 라 도 너 희 가 잘 더 접 흐 려 니 와 오 직 나 는 너 희 와 흥 상 흠 썬 잇  
지 아 니 흐 리 라 이 녀 인 이 힘 을 다 흐 야 그 향 기 록 으 로 내 몸 에 부  
어 미 리 내 장 스 를 위 흠 이 니 라 내 실 노 너 희 게 닐 으 노 니 온 현 하  
에 어 더 더 단 지 복 음 을 전 흐 때 쏘 이 녀 인 의 힘 흐 일 도 말 흐 야 괴 역

하게 하여라 ○ 열 두 데즈의 향나가 략사 롬 유대 가 가서 제 스제  
 장을 보고 예수를 끌고져 향니 그 들이 이 말을 듣고 깃거워 향야  
 돈 주기로 허락 향거 늘 유대 가 었 더 케 예수 잡혀 보낼 기회 를 찾  
 더 라 ○ 누룩 업는 떡 먹는 첫 날 유월 절 양 잡는 때 에 예 즈 들이 예  
 수 씨 말 향 되 셴 성 님 잡 수 실 유월 절 잔 치 를 우리 드 려 어 디 로 가  
 서 예 비 향 라 향 는 잇 가 향 니 예 수 一 데 즈 중 에 드 사 롬 을 보 내 며  
 곶 으 샤 디 성 에 드 러 가 서 물 병 가 지 고 가 는 사 롬 향 나 를 거 괴 서  
 맛 나 리 니 즉 시 <sup>十四</sup> 라 어 디 던 지 그 사 롬 드 러 가 는 집 에 가 서 그 쥬  
 인 도 려 빌 <sup>오</sup> 디 쥬 의 말 습 이 내 가 데 즈 와 흡 셔 유월 절 잔 치 를 먹  
 을 샤 랑 이 어 디 잇 는 요 향 시 더 라 향 면 제 가 큰 다 략 에 츠 린 거 습  
 그 르 처 뵈 이 리 니 거 괴 서 우리 먹 을 거 습 예 비 향 라 향 신 디 데 즈  
 들 이 나 아 가 성 으 로 드 러 가 예 수 의 향 시 던 말 습 디 로 맛 나 유월

절을 예비 하였는 나라 ○ 저물 때 예수 | 열 두 때 즈를 드리시고  
 가서 <sup>十八</sup>홍씨 안저 잡수실 식골의 샴티내 실노니 회개닐으노니 나  
 와 <sup>十九</sup>홍씨 먹노니 회중에 흘사 롬이나 틀 풀니라 하시니 <sup>二十</sup>회들이  
 심히 근심 하였나 식 못 즈와 골의 티내 니 잇가 티 답하 샴티 열  
 돌중에 <sup>二十一</sup>흐나 그릇 세나 와 곳치 손넛는 자 | 나라 인 즈는 성경에  
 기록호 디로 가려니와 인 즈를 풍는 자의 궤는 앙화 잇스리니 그  
 사 롬이나 지아니 하였더면 또 흘 번 하였다 하시더라 ○ <sup>二十二</sup>먹을 때  
 에 예수 | 떡을 가지 샴 축슈 하시고 <sup>二十三</sup>썩여 예 즈들을 주시며 골의  
 샴티 밧아 먹으라 이거시 내 몸이라 하시고 <sup>二十四</sup>또 잔을 가지 샴 축슈  
 하시고 그들을 주시니 다 마시논지라 <sup>二十五</sup>또 골의 샴티 이거 손내의  
 새 로 언약 하였노니 여러 사 롬을 위하야 흘 남이나 <sup>二十六</sup>내 실노니  
 회개닐으노니 니이 포도즙은 <sup>二十七</sup>련 유나라에서 새로 마시논 날

서지내가다시마시지아니하리라하시더라 ○ 또 찬미노래를  
 하시고 감람산으로나가시니라 ○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더러  
 빌으샤되너희다나를슬허브리리니성경에기록하였스되내  
 가양치논이를치매양이스면으로훗터지리라하였느니라 그  
 러나내다시니라난후에너희보다몬져가리리에가리라피득  
 이터답하되다슬허브릴지라도나논그러케안켓숨는다이다에  
 수○또콜으샤되내실노내게빌으노니오날밤에죽이두번을  
 기전에논내가세번나를모른다하시리라하시니피득이두우근  
 절이말하되내가쥬와홍색죽을자연당모른다안켓숨는다이다  
 하니모든제자들이또훈이와갓치말하더라 ○ 또 각셔마니라  
 하논곳에니르려예수○제자들의게빌으샤되너희는여과안  
 져스라나는기도하겠노라하시고피득과이각과요한을드리

고 가실 식크게 놀내시고 압푸게 숨허샤 말 숨 허샤 티 내 믿음  
이 심히 근심 허야 죽게 되었스니 너희는 여과 머물너 잇고 또 썩  
여라 하시고 조곰 압흐로 나가 샤 짜에 업드려 기도 허샤 티  
만 일 홀만 하시거든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쇼셔 하시고 또 썩  
으샤 티 아싸 아바님이 여능치 못하신 거시 업스시니 내게 셔이  
잔을 음겨가옵쇼셔 그러나 나하고 저하는 티로 마옵시고 아바  
님의 뜻 티로 하옵쇼셔 하시고 도라 오샤 그 데 즈들이 자는 거슬  
보시고 피득드려 말 숨 허샤 티 세 문아 자는 나너 회가 혼시 동안  
도 썩여 잇지 못하는 나 썩여 과도 허야 시험에 들지 안케 하여라  
무 음에는 진실 노원 홀이로 되 육신이 약하니라 하시고 다시 나  
아가 샤 과도 하시며 말 숨 허시기를 전과 못치 하시고 또 도라 오  
샤 그 들의 자는 거슬 보시니 눈이 피곤함이 오더 회가 또 혼에 수

세무엇스로되 답할 줄을 아지 못하더라 셋째 번에 또 도라오샤  
 그들의게 니콜의 사디지금은 자코쉬하라 할릴업다 세가오  
 는지라인즈 | 죄인의 손에 풀넛도다 四二 니러나 흠썌갈지어다나  
 를판자 | 갓가이왔느니라 四三 ○ 말슴할실때에 곳 열 두 데즈 중하  
 나 유대가 환도와 몽치가 진 무리를드리고 제스제장과셔사관  
 과장로들의게셔오는지라 四四 예수를판자 | 군호를싸골으디누  
 구던지내가 입맛초는이가 곳그사름이니삼가 잡아가라 하고  
 와셔곳 예수께나아와콜으디 선성님이여 하고 입을맛초니 四六 여  
 러히 예수씨 손을 디어잡거늘 四七 것희섯던이 중에 혼사름이 환도  
 를씩여대 제스의 종을쳐그 귀를씩그니라 四八 예수 | 또 여러사름  
 의게골으샤 디너희가 강도잡는것긋치 환도와 몽치를가지고  
 나를잡으러왔느나 四九 내가 날마다 너희와 흠썌성던에잇서셔



르치되 너희가 잡지 아니 하였시니 오직 이 일이 일움은 성경에  
 말씀 응하였도다 <sup>五十一</sup> 때에 예자들 이다 예수들 브리고 다르나더  
 라 ○ <sup>五十二</sup> 환쇼년이 버섯다가 뵈웃스로 그 리우고 예수들 썩라 오더  
 니 <sup>五十三</sup> 군스들이 잡거늘 뵈웃슬 브리고 벗슨 몸으로 다르나 나라 ○  
 여러 회에 수를 싣을고 대제스의 게가 니 거 괴제스 제장과 장로  
 와 서사관들이 모혔느니라 <sup>五十四</sup> 피득이 예수들 멀리 좃차 대제스 아  
 문에 드러가 하인과 처안져서 불을 쏘이더니 <sup>五十五</sup> 제스 제장과 온  
 공회 가 예수들 죽이라고 증거를 찾되 었지 못함은 거 <sup>五十六</sup> 좃 증거 할  
 는 이 가 여럿 시잇스나 더 회 증거 가 맞지 못함이라 <sup>五十七</sup> 또 두어 사람  
 이 니 러나 거 <sup>五十八</sup> 좃 증거 를 할 여 퀴 디 제 말 이 사 롱 의 손 으로 지 온  
 이 성 던 은 혈 고 사 흘 에 사 롱 의 손 으로 짓 지 아 니 <sup>五十九</sup> 환 성 던 할 나 들  
 세 우리 라 함 을 우리 가 드 렷 노 라 할 되 그 증거 가 또 환 맞 지 안 느

지라 대제사<sup>六二</sup> | 니러나 밋사 롱가 온디 서서 예수 드려 무려 곶이  
 디너는 아모디 답도 업는 나이사 롱들의 증거 하는 거시 무엇시  
 뇨하되<sup>六一</sup> 짐 짐 하고 디 답 하시 지안케 놀대 제사 | 다시 무려 곶이  
 디네가 복주시는 이의 아들 괴독이나<sup>六三</sup> 그 제야 디 답 하샤 디네가  
 기로 다 너희가 인자 | 권능잇스 신이의 우편에 안젧다가 하논  
 구름을<sup>六四</sup> 두고 음을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 | 제 옷 술찌지며 곶이  
 디 우리가 었지 다른 증거를 쓰리오 그 참람 할 말을 너희도 드렸  
 시니 너희 뜻에 는 었더 하 뇨여 러히 다 곶이 디 죽임으로 영 죄함  
 이 맛당 하다 하<sup>六五</sup> 고 후춤도 밧흐며 그 열 곶을 그리고 쓰리며 곶이  
 디 선지 하논 말을 하라 하<sup>六六</sup> 고 군스 들은 손바닥으로 쓰리더라 ○  
 피득은 밧갓아 문에 잇더니 대제사의 게 집 좃 하나 이와 서<sup>六七</sup> 피득  
 이 불 쪼 임을 보고 곶이 디 너도나 살륙 예수와 함 켜 하자 | 로다

아나복음 三三 제삼장

삼십구

六六  
 ㅎ거늘 피득이 모로논 테 ㅎ여 글으 디나논 아 지도 못 ㅎ고 너 말  
 ㅎ논 것도 무엇 신 저 세 닷지 못 ㅎ겟노라 ㅎ며 문 밧그로 나 아  
 가니 ㅎ이 우는 저 라 六九  
 ㅎ 집 종이 또 보 고 제 것 회 셴는 사 룬 들 드 러  
 ㅎ으 디 더 사 룬 도 그 당 중 에 ㅎ나 이 라 ㅎ되 또 모 로 논 테 ㅎ더 니  
 ㅎ곰 있 다 가 것 회 셴 사 룬 들 이 다 시 피 득 드 러 말 ㅎ디 너 는 가  
 리 리 사 룬 이 니 분 명 ㅎ 그 당 이 로 다 ㅎ거 늘 회 득 이 언 째 ㅎ 말 을  
 ㅎ며 밍 세 ㅎ되 너 말 ㅎ는 이 가 누 군 처 나 는 그 사 룬 을 아 지 못 ㅎ  
 노 라 ㅎ니 죽 시 득 이 두 번 재 우는 저 라 그 제 야 피 득 이 예 수 씨 서  
 더 드 러 말 솜 ㅎ샤 디 득 이 두 번 올 기 전 에 는 네 가 세 번 나 들 모 르  
 다 ㅎ리 라 ㅎ심 을 괴 억 ㅎ고 올 더 라

**데 십 오 장**

새벽이 되어서 제스제창과 장로와서사관과 온

공회가 흠뻑의론하고 예수를 결박하야 쓰을어 피랍다 의게보

내니 피랍다 무리 권으 디네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 | 디답  
 호샤 디네가 말호엿도 다 호시니 제스 제장이 또 여러 사 랫으로  
 송스 호거 논 피랍다 | 또 무리 권으 디 더 들이 여러 사 랫으로 너  
 를 송스 호되 너는 디 답 할 거 시 업스 나 호되 아 모 말 습 도 디 답 지 아  
 니 시 니 그 럼 으 로 피 랑 다 | 이 상 히 녀 이 더 라 ○ 절 기 마 다 감 스  
 가 여러 사 랫 의 소 원 디 로 죄 인 호 나 식 노 아 주 는 전 례 가 잇 는 지  
 라 거 기 란 리 쑤 인 죄 인 들 노 홈 쟈 결 박 호 파 랑 파 | 라 호 는 자 |  
 잇 스 니 란 라 를 쑤 일 때 에 살 인 호 죄 를 범 호 지 라 여 러 사 랫 이 나  
 아 가 더 회 개 호 여 주 던 전 례 호 기 를 감 스 의 게 구 호 니 피 랑 다  
 | 디 답 호 디 나 드 러 유 태 사 랫 의 왕 을 노 아 달 나 호 는 나 홈 은 제 스  
 제 장 이 예 수 를 식 기 호 야 잡 아 온 줄 을 알 밀 너 라 제 스 제 장 이  
 여 러 사 랫 을 충 동 호 야 파 랑 파 를 노 아 주 게 호 자 호 니 피 랑 다

一 또 디답호여 크으 디그러면 유태 사람의 왕이라 호는 이느 내  
 가 잇더 케호라 호니 디 들이 다시 소리를 질너 크으 디그러는 십즈  
 가에 못박게 호쇼셔 피랍다 一 크으 디엇짐이 노무 숨악 호일을  
 힘 호였느 나 여러히 더욱 소리 질너 크으 디 십즈 가에 못박게 호쇼  
 셔 호거 놀 피랍다 여러 사람을 안돈 케호고 저 호야 파랍파는 노  
 아주 고 예수를 처적 질 호야 십즈 가에 못박게 호니라 ○ 군스들  
 이에 수를 쓰을 고 아문 안호로 드러 가니 곳 공회라 이에 온 영문  
 을 모호고 호포를 낚히고 가 식면 류 관틀역 거쓰우 고인 스를 드  
 려 크으 디 유태 사람의 왕은 평안 호나 호며 갈 디로 그머 리틀 처  
 고 춤도 밧고 살어 절 호고 희롱 호기를 다 호매 호포를 벗기 호그  
 전 옷 슬 넘히고 십즈 가에 못박으랴고 호오러 가니라 ○ 고 리내  
 사 름 서 문은 아 려 산 대와 로 북의 아 밤 이 라 식 골 노 셔 오 는 길 에

지나가더니 여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갈시더니 예수를 보  
 고 각각 타라 하시는 곳에 니르니 번역하면 희골 있는 곳이라 술  
 에 몰약을 타서 주거든 예수 밧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 
 박고 그 옷을 논홀시니 누가 었을고야 제비를 썩더라 십자가에  
 못을 박았시 때 가진시라 그 우희 잇는 명패에 쓰기를 유태사  
 림의 왕이라 하였고 또 강도 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 
 시으나 우편에 잇고 하나는 좌편에 잇더라 지나가는 이들도  
 꾸짖고 머리를 흔들며 이르디 성년을 헐고 사흘만에 짓겟다 하  
 던이 여이 제네가 너를 구원하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  
 와웃치제스 제장과 셔셔 관들도 희롱하며 서로 이르디 제가 다  
 른 사람은 구원하였스되 제 몸은 구원치 못하는도다 이석렬의  
 님금과 독은 즉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우리가 보고 밧게

가나 복음 三三 제십오장

三三 제십오장

하여라 하고 심지가에 흠쳐 못 박힌 강도들도 욱하더라 ○ 오시  
 중으로 브터미시 말서지 온싸 하여 돕더니 미시 말에 예수 | 크  
 게 소리 질너 큰으샤 디엘노이 엘노이나 마사 썩다 뇌아 하시니  
 번역하면 곳내의 려 쥬내의 려 쥬 | 여엇 지나를 버리시는  
 나잇가 흠이라 <sup>三三</sup>갓희 션던쟈 들은듯고 큰으 디이사 롬이 이리아  
 를 부른다 하니 <sup>三六</sup>흐사 롬이 션니 가서 히용을 초에 적셔 셔갈터에  
 썩여 마시우라 하고 거늘 큰으 디아 직<sup>三</sup>만 두어 라이리아가 와서  
 더를 느려오게 하니 보자 <sup>三七</sup>하더라 예수 |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  
 고 령혼이 썩어나가니 <sup>三八</sup>성던 회장이 우흐로 브터 아래서 지 썩어져  
 들이되니 <sup>三九</sup>예수 압희갓가 히 션던 빅부장이 그리케 크게 부르지  
 지시다 <sup>四〇</sup>가 령혼이 썩어나감을 보고 큰으 디이사 롬이 진실노 려  
 쥬의 아들이로다 하고 <sup>四一</sup>녀인들도 거기 와서 부르 볼서 그중에 말

대 략의 마리아와 절은 아 각 파 요 서 의 어 마 니 마 리 아 와 또 살 라  
 미 가 잇 스 니 예 수 가 리 리 에 게 실 쟈 에 좇 처 며 섬 기 던 이 요 다 른  
 녀 인 들 은 예 수 와 홈 쟈 야 토 살 텅 에 올 나 가 던 일 니 라 ○ 이 날 은  
 절 일 을 예 비 하 느 날 이 오 사 밧 일 전 날 이 라 저 물 쟈 에 아 리 마 태  
 사 롱 요 술 이 왓 스 니 이 사 름 은 디 위 가 놓 흔 의 론 하 느 관 원 이 요  
 또 던 주 의 나 라 를 소 모 하 느 자 | 라 켈 켈 히 피 랍 다 의 게 드 러  
 가 예 수 의 시 테 를 달 나 하 니 피 랍 다 | 예 수 쟈 서 밧 셔 도 라 가 심  
 을 이 상 히 녀 여 빅 부 장 을 불 너 도 라 가 신 제 일 마 나 오 래 도 엿 는  
 지 못 고 아 라 본 후 에 요 술 의 게 시 테 를 내 여 주 거 늘 요 술 이 가 는  
 비 를 사 고 시 테 를 가 저 다 가 거 기 쟈 서 반 석 가 온 디 곧 무 덤 에 피  
 셔 두 고 돌 을 구 을 녀 그 문 을 막 으 매 또 말 대 략 에 마 리 아 와 요 서  
 의 어 마 니 마 리 아 가 홈 쟈 시 테 둔 곳 슬 보 더 라



데십륙장

사밧날이 지난지라 말대랍에 마리아와 아

각의어마니마리아와또살나미가예수씨바를향료를사가지  
고사밧날잇흔날미우일즉이히돏을째에그무덤에와셔서로  
말흐되누가우리를위하야더딕덤문에돌을구을녀낼고홈은그  
돌이미우콤일너니브라본족돌이발셔구을너갓거늘무덤에  
드러가니흔쇼년이흰옷을닙고그우편에안젧는지라녀인이  
보고놀내거늘그쇼년이닐너큰으디놀내지말나너희가심즈  
가에못박힌나살륙사름에수를찾는다마는그가다시너러나  
섯고여과게시지안하니시테두엇던곳슬보라하고골으큰터  
가셔그의메즈들과피득의게닐으기를예수씨셔전에너희게  
말씀하시던티로너희보다몬져가리리로가시리니너희가거  
과셔되오리라하거늘너인들이셜며놀내여무덤에서나아와

아모드려말함마되도호지못함은무셔워함일너라○사밧날  
 잇른날시벽에예수씩셔다시니러나샤전에닐곰귀신쫓차내  
 여주신내인말대랍의마리아의게몬져뵈이시니그녀인이나  
 아가예수와함씩하던사룸의게고함시못춤더희가숨허호고  
 올더니예수다시사라나셔셔이녀인의게뵈섯다함을듯  
 고밋지안터라○그러케호후데즈중두사룸이거러셔식골느려  
 갈때에예수되셔형용을변호야더희게뵈이시니그사룸들이  
 가서그눔은데즈들의게고호되또호밋지안터라○그후열호  
 데즈이함셔안자음식먹을때에예수씩셔또더희게뵈이샤그  
 들의밋지안함과음미완함을썩지스심은그들이예수다시  
 니러나신후에보았다호는사룸을밋지안호연고닐너라또말  
 슘호샤되너희는온던하에드니며모든벽성의게복음을전호

라<sup>十六</sup> 밋고 세례를 밋는 이는 구원을 엿을 거시오 밋지 안는 이는 죄  
를<sup>十七</sup> 덩 흘 거시니 밋는 이 의게는 모든 이 상 흘 징조 가 쓰라 내 일 흠  
으로 더 회 가 귀 신 을 쫓 처 며 외 방 말 을 흐 며 비<sup>十八</sup> 암 잡 으며 독 흘 거  
슬 마 시 되 상 흠 이 엮 스 며 병 든 사 롬 을 손 으 로 문 지 매 나 흐 리 라  
○ 쥬 예 수 씨 서 말 솜 을 못 처 신 후 에 던 당 에 오 르 샤    던 쥬 우 편  
에 안 자 게 시 니 데<sup>二十</sup> 즈 들 이 나 아 가 각 처 에 전 도 흘 시 쥬 씨 서 그 들  
과 흠 씨 일 을 흐 시 니 그 쓰 르 는 징 조 로 도 를 증 거 흐 더 라    아 멘

